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www.uniedu.go.kr

VOL. 6 2007. 12

통일부 통일교육소식

원고모집

통일염원이 담긴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발견되거나 느껴지는 평화와 통일 관련 다양한 콘텐츠와 생각은 바로 UEM의 주요 테마별 소재가 됩니다

투고부문

- 원고
(인물 소개) <통일관련 목소리> <통일관련 동아리 소개> <하트슈 기고문> 등
- 사진 이미지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는 통일·평화 관련, 남북관계 이미지)

투고방법

- 대상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 재학생 및 대학생/일반인
- 투고처 assa@khan.co.kr로 'UEM 투고' 제목으로 넣되 개인연락처와 이름 명기(사진 이미지는 JPG파일로 전송)
- ※ 채택된 분에게 해당 호 UEM 1부와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실 경우 객원기자로 활동기회 제공. 기타 문의는 기획제작 담당 (주)경향C&L 02-733-0365 문의 바랍니다

객원 및 명예기자 선발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1기 'UEM' 객원 및 명예기자 4차선발

통일에 대해 좀더 가까이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 그러나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질 평화의 광파라...
통일염원의 전령사로서, 통일교육의 소통지로서 'UEM' 과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부문

- <객원기자> 인터뷰 및 스크립트,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 <명예기자> 일상 속 평화와 통일관련 소재 발굴 및 취재

<2차 면접전형>

- 1차 합격 개별통보 후 추후 면접(추천일 경우 생략) 전형일 홈페이지www.uniedu.go.kr 공지 및 개별통보

응시자격

-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 학생 및 교사와 대학생 및 일반인 (성별, 학력, 나이 상관없이 해당부문 관심 있는 자 추천도 가능)

<모집마감>

2008년 3월 7일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공통: 일반서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200자 원고지 2~3장 내외)
- 객원기자: 통일 또는 평화(국내 또는 국제) 관련 칼럼 1건(200자 원고지 7장 내외)
- *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응시자는 통일 또는 평화 이미지 사진파일 2점 제출
- 명예기자: 평화와 통일 관련 소재 또는 관심영역 기사(200자 원고지 7장 내외)

<접수 및 문의>

- assa@khan.co.kr로 '제1기 4차선발 UEM 기자 응시' 제목으로 접수 및 문의
- * 응모 의사가 있는 분들 중 UEM 기 발행호가 필요하신 분은 위 메일로 받을 주소와 성명,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활동지원 및 혜택

- 기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 지원
- 해당부문 활동경력 인정서 발급

※ 1기 3차선발 'UEM' 객원기자 프로필

 **엄관식(49)**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학교 행정실장
통일카페 운영(http://cafe.daum.net/ti0706)



표지그림: **봉래산 비봉폭포**(61×30.5cm / 판화 / 2007) 작가 **류연복**
1984년 대학졸업(홍대)하면서 서울미술공동체 결성, 벽화팀 '십장생'에서 벽화운동 전개. 2004회의의 단체전과 국제전, 기금 마련전에 동참하였으며 개인전으로는 '류연복 민중 판화전' (미국, 1993년) 등 수 회 개최. 판화집으로는 '갈아엮은 땅' (학교재, 1991년) 등이 있으며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경기도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일민미술관 등이 있다



2007년 12월 20일 발행(통권 제6호) 등록번호 11-1250054-000033-09
발행인 김흥재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Tel 02)901-7160-7 Fax 02)901-7088
주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Tel 02)901-7165
편집위원 이지연·윤환철·정용민·허운
편집기획·제작 (주)경향C&L www.kup365.com Tel 02)733-0365
복디자인 Design B61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무단복제를 금하며 통일교육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교육소식 Contents

- 02 **광고**
원고모집 / 제1기 'UEM' 객원 및 명예기자 4차선발
- 04 **특별기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개방 지향적 통일교육을 바라며 _ 박찬석
- 06 **테마기획**
2007 남북정상회담

- 10 **통일교육 현장안팎**
 -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의의와 주체 등 시사성에 무게 _ 유동걸
 - '입시'에 매몰된 아이들에게 흠비분위의 통일교육으로 학습유도 _ 김금옥
 - 왜 달리느냐구요? 통일이 보이니까요! _ 편집부
 - '통일'을 일상 속 '비주얼 콘텐츠'로 접근 _ 편집부
 - 제12회 전국학생통일글짓기 대회 수상작

- 30 **새터민들의 24시**
우리를 '먼저 온 미래' 그리고 '함께 갈 이웃'으로 바꾸세요 _ 허운

- 34 **NGO's 소개**
북녘으로 이어진 뜨거움 · 나눔의 '천사띠' _ 정대진

- 37 **북한 깊이보기**
전체주의적이며 집단적인 성향 일색 _ 박미례

- 40 **통일을 여는 역사**
유적보존과 체계적 발굴조사 필요성 공동인식 계기 _ 이상준

- 43 **에세이**
분단의 벽을 넘어 _ 조재형

- 46 **북한관련 미디어 리뷰**
낮은 '시청률' 임에도 남북방송교류 '물꼬' 의의 _ 이지연

- 49 **남북관계-1 · 남북회담**
 - 제1차 남북총리회담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 51 **남북관계-2 · 경제협력**
- 56 **남북관계-3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 59 **남북관계-4 · 사회문화교류/지자체 · 예술계**
- 63 **통일부&통일교육원 뉴스 · 하반기 주요행사**
- 65 **독자엽서**
- 67 **남북 · 통일 시간안내**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개방 지향적 통일교육을 바라며

박천석 공주교대 교수

2007년 올해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노력을 실천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 회담은 2000년에 있었던 남북정상의 만남을 남과 북 사이에 더욱 강력하게 연결해 주며, 한반도의 미래를 밝게 하는 역사적 성과인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그렇게도 원하던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그 힘이 진척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이 곳곳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통일교육의 실천자들도 앞으로의 진행을 기획하고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되는 시기부터 평화지향의 모색으로 통일교육을 다듬어 왔다. 평화통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희망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 이루어졌다. 그 평화의 진정성은 남북한이 서로에게 평온함을 기원하는 청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화는 보편적으로 남북한 사회 모두에 적용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조성을 이루면서 인내하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사랑의 정신을 발휘하며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열림을 향한 개방적 논의와 함께 통일교육을 진전시켜 왔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해 보여 준 개방적인 측면으로의 노력은 북한이 변화하게 하는 데 일조해 왔다. 이러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통일교육의 진척이 더욱더 평화와 열린사회로의 지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단일 민족 중심의 민족주의나 편협한 우월성을 내세우는 접근으로는 북한의 마음을 열리게 할 수 없다.

남북한은 서로를 위하여 변하고 있다. 그 힘의 원동력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남북 교류와 협력이다. 그 교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마음이 먼저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의 모두가 북한을 너무도 증오하거나 폄하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남북의 정상이 만날 수도, 우리가 금강산에 갈 수도, 개성에 공단을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이 중요한 상황과 현상들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통일교육의 방향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과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남북한의 삶을 생각하며 조성에 나가야 한다. 여기서 그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실천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통일교육의 실천가들은 현 남북한 체제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 내용에서 평화적 관점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화를 향한 통일교육은 통합된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서로 수용되어야 할 가치교육이다. 여기서 평화주의의 관점은 단순히 전쟁부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한반도 구성원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이며, 개개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노력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반감과 갈등을 지양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평화로의 해결노력이 기초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실천가들은 열린사회로의 개방을 실천하는 현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개방을 추구하는 통일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방적 인식을 강화하는 통일교육이야말로 가장 확

실한 한반도 통합의 길이기 때문이다. 개방지향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이며 보편적인 시각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적 전환이 앞으로의 통일교육에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와 개방 지향적 통일교육은 열린 민족주의와 포용력, 남북 및 남남 갈등문제의 해소, 평화를 향한 통일문제 해결을 진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개방적이며 평화적인 통일논의 과정의 진행과 결과에 의해 한반도의 통합으로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의 논의에 있어서 열린 민족주의와 보편적 민주주의, 평화 지향적 내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어느 특정 계층·정파의 논의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원 모두의 인내와 배려의 실천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다 음과 같은 내용선정의 기준과 실천이 요구된다.

통일교육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근거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에서 기인된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분단극복을 단일 민족의 정서로 이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 사회가 새터민을 포함하여 100만명 이상의 다른 사회 이주민들이 공존하는 다 민족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개방적이며 보편적인 논의로의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향한 개인이나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

서 평화를 향한 기초를 통일교육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는 남북한 통합의 구상과 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구상은 '구성원의 공존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은 통일교육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다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인간 안보는 물론 사회·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책임성까지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자기 사상이나 주장에 맹신하는 통일문제 시각들은 상황을 호도하거나 비판하는 논리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탈피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견을 갖는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통일논의와 통일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평화적이며 개방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이념이 다른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렇기에 통일교육은 우리 남한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내용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융합적 통일교육의 내용구성은 바로 열린 민족주의와 보편적 민주주의의 개방적 원칙과 평화주의적 접근의 평화적 원칙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통일은 현실적 과제이며 미래의 비전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통일이 우리 스스로의 평화적 노력과 개방 진척의 결과에서 얻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와 개방 지향적인 통일교육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력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평화와 개방적 원칙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을 통해 역사적인 진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

6·15 공동선언 계승발전 아래, 평화와 번영 동시 추진 토대

지난 10월 2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정상회담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열었다면, '평화'의 문을 활짝 연 회담이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과제에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2007 정상회담의 성과·의의 및 여론조사 내용, 그리고 회담 수행원의 눈과 귀를 통해 본 회담 현장을 느껴본다. [▶ 편집자 주](#)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 · 의의와 모니터링 내용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 마련

1. 주요 합의내용

①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 강구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확고히 전환
-상호 내정 불간섭과 제반 문제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통일지향적으로 정비
-남북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

③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
-서해평화정착방안과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협의를 위해 국방장관회담 개최(11월중 평양)

④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핵문제 해결 노력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중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
-'9·19공동성명', '2·13합의'의 준수로 이행 위해 공동노력

⑤ 남북 경협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투자 장려·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추진, 우대조건과 특혜 부여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개성공단 1단계 조속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 단지 건설 △농업·보건으로·환경 분야 등 협력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⑥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및 백두산 관광 실시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 참가

⑦ 남북간 인도적 협력 적극 추진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정상회담 이후 주요 남북회담 및 사업추진 일정

	남북회담	주요사업
2007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남북총리회담(11.14-16, 서울) ○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 접촉(11.20-21, 개성) ○ 국방장관회담(11.27-29, 평양)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 접촉(11.28-29, 개성) ○ 제9차 적십자회담(11.28-30, 금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면화소 사무소 개소식(12.7) ○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개시(12.11) ○ 해주특구개발,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현지조사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현지조사 ○ 안변·남포지역 2차 현지조사 ○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지질조사 ○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개선조치 ○ 단천지구광산 3차 현지조사
2007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공동위 1차 회의(12.4-6) ○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 접촉(개성) ○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1차 회의(부산)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1차 회의(개성) ○ 철도운영공동위 1차 회의(개성) ○ 남북응원단이 경의선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 ○ 공동어로협력분과위 1차 회의 ○ 해주특구개발,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실무접촉 ○ 기산협력 실무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친척 영상편지 시범교환 ○ 공동어로사업 착수(상반기) ○ 안변지역 선박 블록공장 건설 착수(상반기) ○ 단천지구광산 사업계획 확정(상반기) ○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착수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 ○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 중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착수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총리회담(상반기, 평양) ○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친척 영상편지 교환사업 ○ 안변지역 선박 블록공장 건설 착수(상반기) ○ 단천지구광산 사업계획 확정(상반기) ○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착수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 ○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 중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착수

대입 논술 · 면접 대비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사례모형 제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의의와 주체 등 시사성에 무게

잠시 시간을 거슬러 2000년 6월의 정상회담의 감격과 환희를 떠올려본다. 그 후 이산가족들의 눈물겨운 만남은 물론,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으로 국민들은 북에 대한 인식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맞보았다.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과 서해 교전이 남북의 장벽을 다시 쌓는 듯 했지만, '2007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시대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가오는 미래, 통일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한반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 '통일교육'의 현장화와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함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입'으로 함축되는 우리네 교육현실에서, 내신-수능-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변별 수단으로 다가온 논술. 그 논술은 과연 남북관계 혹은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봐 왔으며,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2008학년도 대입 논술에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통일 관련 소재를 활용한 논술시험 문제는 작년 봄 서강대에서 처음 출제하였다. 서강대는 2005년 9월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헤럴드 경제와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사실 혹은 기사의 한 대목들을 묶어서 '북한에 대한 세계사회의 식량원조와 북한의 인권상황을 연계한 사실(事實)을 작성하시오'란 문제를 냈다.

당시 북핵문제와 북한의 인권상황,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이 한창 이슈가 되던 상황이어서 신문사설에 제시된 다양한 논조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북한의 정체성과 인권에 대한 의식,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글을 쓰는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글쓰기'에 있어서 성공 키워드란?

여기서 글쓰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볼 것은 객관적 사실과 자신의 주관적 견해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접근하는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하되, 논점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논거 등을 잘 활용하여 글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논술은 객관적인 세계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세계관이나 통일관 등 주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공부와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임을 우선 깨달아야한다

그 후 드물게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성공회대학교는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논술문제에, 서울시립대학교는 2007 정시 논술 문제로 각각 출제하였다.

〈서울 시립대학교 '2007 정시 논술문제'〉

세계경제는 매년 성장하고, 부자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하지만 빈곤층이 겪는 가난과 굶주림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으며, 빈곤 퇴치 문제는 여전히 지구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사회도 유사한 난제에 봉착해 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문제가 그것이다. 최근 핵 문제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중략)

나도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은 아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을 외면하여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된다면, 우리 사회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비용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설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내가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내가 지금 북한을 돕는다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미래의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지불하는 것은 내가 누리게 될 풍요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따라서 나는 지금 대북 경제 원조를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먼 나라 사람일지라도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을 옹호하는 논거들과 반박하는 논거들을 위의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다.

성공회대의 경우 199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 행사에서 일본의 사카모토 요시카즈가 쓴 '한국 냉전의 종식을 기대하며'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안- 이라는 글의 한 대목을 제시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대칭성' 개념을 군사, 경제, 이념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시오. 또한 최근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비대칭성'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응 방안이 가능한지를 서술해 보시오.

지문을 다 제시할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비대칭성 개념과 핵문제 해결을 제시하라는 전형적인 '문제 해결형' 문제이다.

2007 학교통일교육경진대회 발표사례 중 일부발췌

‘입시’에 매몰된 아이들에게 흥미본위의 통일교육으로 학습유도

통일교육은 이론적 지식을 튼튼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마음으로 통일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다. 통일의 주역은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교과학습에만 매몰되어있는 아이들에게 흥미있는 다양한 통일관련 학습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남북간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비하게 하며, 민주시민의식과 민족 공동체의식을 심어주어 통일국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게 하는데 노력하였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진로의 주요변수 체크

그렇다면 다가오는 2008학년도에는 어떤 문제들이 다루어질까?

예상되는 논제를 먼저 생각해보자. 우선 시사적인 문제로 '2007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의미'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헌법과 영토 혹은 주권의 문제'라든지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대선 관련 각 당이나 대통령 후보들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차이도 눈여겨 보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적인 문제는 특정한 시각에 기대어 출제되기는 어려우므로 대통령이 지닌 대한민국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자의 역할과 한계, 헌법의 기능과 의미,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연관된 법개정이나 폐기를 위한 국민적 합의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두는 것이 좋다.

휴전협정이 50여년을 넘어서서 바야흐로 한반도에 종전선언·평화협정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통일의 상에 대한 과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평화'라는 화두를 품어 안지 않고서는 통일을 말하기 힘든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의의와 주제 등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가져두는 것이 좋겠다.

통일을 둘러싼 경제적 비용의 부담 문제도 끊이지 않는 논란이다.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실제 경제를 축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 과연 통일 이후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한지도 고민해 둘 문제다. 거기에는 개성공단의 경제효과와 금강산사업의 확장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진로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남북간에 문화 이질화에 대한 논의도 해묵은 문제이다. 언어를 포함한 역사·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탈근대·다문화·열린 민족주의 시대의 새로운 삶의 자세나 철학에 대한 인식도 실제적인 사회현상과 연결지어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새터민을 포함해 남과 북 사이의 경계에서 남북 양측의 차이를 넘어서려는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질적인 차이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면 남북의 차이보다 화합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고의 싹을 틔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족화해의 감성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숙고

그 밖에도 여러 자질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논술에서 논제 못지않게 중요한 건 관점이다.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그리고 개성공단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 경제 전망은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한 단계, 한 차원 더 나아간 인식과 전망을 요구한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식의 차원이 어디까지일지, 또 그곳에서 활용하는 제시문의 범위가 시사적인 언론일지, 심층적인 학술서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획기적인 전환기에 접어든 통일 시대를 상상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꾸준히 신문이나 시사잡지를 읽으면서 사실에 대한 풍부한 상식을 넓혀가면서(좋은 글을 스크랩과 요약까지 해두면 금상첨화) 주변의 어른들하고 토론을 하는 습관을 가질 때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이 함양될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문제를 차가운 경제논리나 대립된 이데올로기보다는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이나 윤홍길 '장마' 같은 소설을 통해 민족화해의 감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평화통일 시대의 학생들은 드넓은 세계 속에서 다양한 사상·문화를 지닌 지구촌의 사람들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열린 민족의 감성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다. 



유동길 영동일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이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화해와 평화정신에 기반한 통일의 신념을 갖춰 나갈 때, 남과 북이 공생번영하는 평화 통일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리라 믿는다고

To - 북한에 사는 친구에게 ...

안녕?
 난 남한에 살고 있는 박보민이라고 해.
 지금은 전라남도 순천 향림중학교 3학년이 재학 중이야.
 내가 지금부터 우리 남한의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취미,
 특기에 대해 가르쳐 줄게.
 먼저 우리 남한의 학교 방학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이
 있어... 그 중에서 봄방학은 2주일 정도 하고, 여름방학은
 겨울방학과 같이 한 달정도 해. 그런데 너희 북한은 봄방학이
 없다고 들었어. 여름방학이 조금 짧고, 겨울방학이 길다며??
 우리 남한도 겨울방학이 더 길어. 방학 때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볼며 방학을 알차게 보내지.
 아깝, 너희 북한에서는 교복을 입는데, 그 때 정부에서 지정한
 붉은 스카프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신기하다.
 그 스카프가 사회주의 혁명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니.....
 거기에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몰랐어.
 그리고 우리 남한 청소년들은 각자 다양한 취미생활과 독기를
 가졌어. 책읽기, 족구하기, 그림그리기, 게임하기..... 그런데 난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고, 플루트 부는 것도 좋아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악기도 다루고, 게임도 하고 그런 취미생활을 하겠지?
 너희들은 어떤 것을 하고, 좋아하는지 궁금하다.
 같은 한민족, 한 친구인데 이렇게 서로 모르는게 많다니...
 학기 초에는 같이 모여서 숙제도 하고, 서로 문화도 익히고,
 방학 때는 함께 볼며 생활하고, 하루 빨리 통일이 되면
 좋던데 말이야.

나도 북한에 가서 보고, 배운 싶은 것도 많은데..... 아쉽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자. 우리 남한과
 북한이 서로 더 많은 관심과 교육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이루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안녕... 다음에 꼭 만나자 ^^

2007년 4월 9일 월요일
 From... 남한에 사는 친구 보민이...



들어가기

전 교과에 통일교육을 시범 실시하였으나 통일교육에 전문성이 부족한 교과에 통일교육 관련 학습자료 구안 적용이 어려웠고 억지스러운 면도 있었다. 학부모들이 성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각 교과에서 시행하는 통일관련 수행과제에 대한 불만도 있었으며, 연구과제를 시작하며 과도한 욕심으로 학생들에게 이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세워주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하며 차츰 학교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

‘학생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외지 고취’라는 주제 아래 통일교육 교수학습과정 운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과 통일기원 학생활동을 통한 통일외지 고취라는 두 개의 연구과제를 설정 운영하였다.

1.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1) 여건 조성

교내에 통일관을 설치 운영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사 및 학생 학부모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외지 함양을 유도,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실과 복도에 통일교육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였고 학교 홈페이지에 통일마당 코너를 설치하여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의견교환 활동을 하였으며 매달 향림소식지를 통해 학교 통일교육 안내를 하였다.

(2) 교과특성 고려한 교과별 통일교육 시행

학년 초 전 교과 단원분석을 통해 통일교육 요소를 추출하고 월 1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차시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통일교육을 하였다.

교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과별 통일교육을 하였다. 예를 들면, 국어-통일사전 만들기, 도덕-남북문화재 달력만들기, 사회-우리민족의 자긍심 표현하기, 과학-평화통일기원 로켓 만들기, 기술가정-개성공단 이해, 체육-하나되어 달리기·통일치어리딩 발표, 음악-이달의 통일노래 배우기·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미술-통일결계, 영어-북한친구에게 영어편지쓰기 등 전 교과에서 통일교육 관련 수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어과에서 실시한 통일시 쓰기 학생작품에 아이들과 함께 음악과 선생님께서 곡을 붙여 향림중 통일송 - 'I Love Unikorea'를 만들어 전교생이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춰 2학년이 체육시간에 모듬별로 통일 치어리딩으로 표현하였으며, 10월 24일 향림축제에 우수작품 발표가 있었다.

2. 통일기원 학생활동을 통한 통일외지 고취

(1) 외부강사초청 강연회

4월 초 북한의 중학교 교사출신의 새터민 강사를 초청, ‘새터민과의 대화’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북한의 학교생활과 사회문화 현실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민족 동질감을 갖고 통일외지를 다지는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은 학생들의 ‘새터민과의 대화’ 소감록의 일부이다.

새터민 선생님께서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때 가슴이 정말 찡찡했다. 진짜 통일이 빨리되어서 이 노래를 북한 주민들과 같이 손잡고 부르고픈 마음이 생겼다. -2학년 권나영-

북한 사람을 직접 만나 본 것도, 강의를 들은 것도 처음이었다.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북한은 우리나라의 60-70년대 상황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문화수준과 생활습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우리의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품고 통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겠다고 느꼈다. -3학년 천호수-

10월 통일교육원 주관 ‘찾아가는 통일교육’에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교 통일교육이 학교 자체만의 교육이 아닌 국가적인 통일교육임을 인식하게 되고, 놀이마당에 적극 참여하며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2) 통일파일철 - 'I Love Unikorea' 작성 활용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행을 위하여 전교생 1인 1통일 파일철을 활용하여, 통일관련자료와 남북문화이해지, 시사자료·소감록, 이달의 통일노래 등을 포트폴리오 하였고, 학생관심을 높이기 위해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우수작은 통일상을 수여하였다.

(3) 통일기원을 위한 체험활동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6월 전일제 통일기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글쓰기(주장글·독후감·생활문 쓰기 등), 그리기(포스터·캐릭터·표어·만화·상상화·통일엽서·통일공익광고 만들기)와 함께 통일 옷놀이, 북한음식 체험하기, 북한영화 감상, 행시 짓기 등에 참여하였다.

한편 교내 정보화 검색대회와 파워포인트 작성대회, 통일기원 하나되어 달리기, 통일 골든벨 대회, 통일옷놀이, 통일영화관람, 통일신문 만들기, 통일전망대 등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고 학생회 주관 북한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향림축제 먹거리





장터의 수익금 전액을 북한어린이 영양빵 공장의 후원에 기탁하였다. (2회 실시 1백50만8,300원 모금 전달)

통일교육의 한 부분을 학생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 시사반, 북한 연구반, 통일 정보검색반의 통일기원 계발활동 부서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통일방송반을 운영하여 매주 1회 학생주도 통일 뉴스방송을 실시하였다.

향림축제 기간에 북한이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학생작품들을 전시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관람하여 일년동안 실시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통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통일의 지를 다지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맺음말

학생들은 지식위주의 이론학습보다는 체험중심의 활동을 더욱 흥미있어 하였다. 다양한 통일교육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생각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라는 노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통일의 꿈이 현실로 다가서는 주춧돌로써 우리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할 때 멋진 초석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신념과 평화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전체 교사의 역할이라고 본다. 수업 중에 교사가 지나가는 말로 책을 한 권 소개하면 그 책을 꼭 찾아서 읽는 학생들이 있다. 우리는 통일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공식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모든 교사의 통일관이 확실히 세워진다면,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연수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교육·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 존중,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준다면 다문화 속에서 살아갈 아이들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협력하며 살아갈 것이다.

한 학생이 통일교육 귀찮다며 "빨리 통일시켜 버리자"라는 소리를 하였다. 아마도 은연중에 통일의식이 새겨진 것이 아닐까?

돌아오지 않는 과거를 옆에 두고 우리민족이 보람을 느끼는 통일이 오는 날을 기다리며...



김금옥 순천항림중학교 교사
평화와 통일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손잡고 이어나가야 하는 일상생활 속 노력의 때가 아닐까...

한국 YMCA '2007 통일자전거 모금 청소년 자전거 종주'

왜 달리느냐구요? 통일이 보이니깐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남과 북이 하나로 달리는 그 날을 꿈꾸며...

지난 8월 5일 전야제(마산 창신대)에 이어 6일 경남 마산을 출발한 YMCA 청소년평화종주단은 12일 임진각에서의 해단식을 끝으로 7박8일간의 '2007 통일자전거 모금 청소년 자전거 종주'의 대장정(마산 - 김해 - 부산 - 울산 - 경주 - 영천 - 대구 - 구미 - 김천 - 대전 - 천안 - 평택 - 용인 - 수원 - 안산 - 시흥 - 부천 - 고양 - 임진각, 총 611.2km)을 마쳤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2005년 광복6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국 YMCA(사무총장 이학영)가 '북한 통일자전거 보내기운동'으로 기획,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물자 수송과 교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매년 2,000대의 자전거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51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특히 탈북 청소년 5명도 함께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올해도 모금액(2억 원)으로 정성스레 만든(북한 실정에 맞게 특수제작) 자전거 2,000대를 지난 8월 14일 인천을 통해 북에 전달했다.

편집부





휴전선 너머 북녘까지 내달리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의 낙오없이 종주토록 하겠습니다



비가 그쳐야 할텐데...(종주 중 폭우를 만나)



(저거 봐, 이쁘지?)남과 북을 잇는 다리갈매



확실히 (통일도장) 찍어드립니다



통일을 향해 달리는 준비(?)예요



출발 전 준비운동 "하나, 둘, 셋..."



힘들어도 난 꼭 해낼거야



엄마, 아빠! 걱정마세요



자, 쉬었으니 힘차게 출발하자구!



으음- 잠이 이렇게 달졸이야



천안

수원

부천

임진각



500대 감사히 전달하겠습니다 (대전 환영식)



정말 우리가 611여km를 달려온거야?



형, 누나들 힘내요!



통일에는 장애도 장애가 안돼요



꿀맛 같은 이맛



프로들이 아니라서 오르막은 죽음(?)

마산

대구



힘드나가요? 아니요!!

부산

경주



오아시스가 따로 없네요



부채춤으로 환영합니다(김천 환영행사)



저희도 맘은 함께 달려요



페이스페인팅 어때요?



건희형 준마 이름은 '달려줘'



기념사진에 빠질 순 없지



으서! 화팅(수원 도착 후)



한마음으로 반겨주는 시민들 (시흥 환영식)



'통일'을 그렸어요



통일자전거 2,000대 갑니다 (8월14일 인천항 선적식)



2007 청소년통일영상제 개요 및 대상 수상작 소개

‘통일’을 일상 속 ‘비주얼 콘텐츠’로 접근

비주얼 세대인 우리네 청소년들의 관심분야인 ‘영상’을 통일과 접목시킴으로써 남북문제나 통일에 무관심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일상 삶의 콘텐츠 중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남과 북, 그리고 통일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해하는 행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2007 청소년통일영상제’(타이틀: “애들아~~ 평화·통일을 보여줘”)가 바로 그것인데 올해 대상 수상작 작품소개와 함께 지난 10월 20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 본 영상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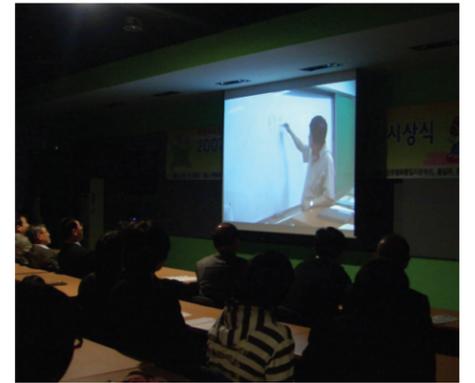


통일과 평화 시각의 참신성, 작품의 창의성 · 완결성 심사

지난 6월 초 통일교육협의회 사무국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청소년 통일문화 행사 일환으로 개최하는 ‘2007 청소년통일영상제’ 공모 공문을 행사 포스터·리플릿과 함께 일선 중·고등학교에 보내는 업무로 분주하였다. 각 단체별 연결 가능한 중·고등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높은 공모율을 기대하는 곳으로는 영상 동아리 활동이 왕성한 학교나 영상·애니메이션고등학교, 그리고 전국의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들었다.

공모자격을 대학생을 제외한 청소년 개인 또는 공동 창작물로 한 이번 영상제 공모전은 모든 형식의 영상물(단편영화·다큐·드라마·애니메이션 등등)을 받되 작품주제는 이산가족 상봉·새터민·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 그리고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학교 또는 다른 공간의 이야기(그 외 전쟁과 분단,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내용) 등으로 제한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통일교육협의회(서울 마포구 아현동) 홈페이지(www.tongiledu.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완성된 영상물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케 하였다.

“청소년이여, 평화·통일을 읽어내라!”를 부제로 한 올해 청소년통일영상제 응모 건 수는 총 32편(239명)이었다. 이를 학년으로 세분해보면 중학교 11편, 고등학교 20편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참여한 팀이 1편, 서울 소재학교 22편, 지방 10편으로 (* 서울 22팀, 경기 2팀, 경북 8팀) 나타났다. 심사기준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시각의 참신성, 작품의 창의성과 완결성을 중심으로 했으며,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등 총 10팀(특별상 별도)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배재대학 학술지원센터에서 가진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 상영시간도 함께 가졌다.



2007 청소년통일영상제 수상작

수상명	수상작	수상자	
대상(통일부장관상)	무거운 발걸음	누원고 J.O.Y(김대순 외 10명, 지도교사 이종두)	
최우수상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의장상	하루	정예은 외 5명(창덕여중)
	통일연구원장상	우리의 마음이 모여 통일이 됩니다	노희진, 강수림(한국애니고)
	민주평등지문회의 사무처장상	가나긴 여정2	전광혁 외 3명(셋넷학교)
우수상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의장상)	Imagination	동원중TIP	
	벽(The wall)	신아란 외 4명(한국애니고)	
	이데올로지컬	테라피 고호성 외 2명(잠실고)	
장려상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의장상)	만남	니준영 외 5명(누원고)	
	분단의 이품	정유진 외 3명(서서울생활과학고)	
	통일	이은지 외 3명(창덕여중)	

기타 문의 : 통일교육협의회 사무국 (02)392-1785, tongiledu@tongiledu.org



작품참여 학생 입으로 듣는 대상 수상작 무거운 발걸음



작품 줄거리 및 스태프

남북교환학생으로 본 '이연화' 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남북한 간의 교환학생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이연화' 라는 북한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남한에 있는 고등학교에 오게 된다. 처음에 남한 학생들은 북한 학생이 신기해서 다가가 친해지려고 하는데, 북한과의 문화 차이를 느끼고 점점 멀어져 간다. 연화는 남과 북의 문화차이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학교 수업시간에 북한문화에 대한 수업을 받게 되는 남한 학생들은 북한과 남한의 문화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연화를 이해하게 된다. 연화와 남한 학생들이 친해지게 될 즈음 연화는 교환학생프로그램 기간이 끝나게 돼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 서로 친해지고 이해할 만할 때 북으로 돌아가는 연화의 마음은 안타깝다.

완전히 통일된 날을 기대하며 북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대상 수상작 제작참여 학생들

성별	이름	학년	담당파트	특기
여	강지연	2학년	기획	섭외
남	김대순	2학년	연출	편집
여	함진주	1학년	배우	
여	김가비	2학년	배우	
여	구은선	2학년	연출	
남	정규민	2학년	카메라	
여	박보미	1학년	배우	시나리오
여	김민지	1학년	배우	시나리오
남	원중현	1학년	배우	콘티
여	채수진	2학년	스텝	

타 작품과의 변별점과 제작 에피소드

“정말 북한 학생 같다”는 평을 들었을 때 보람

〈타 작품과 비교 시 변별적 구성 콘텐츠〉

'무거운 발걸음'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 학생들 간 교환프로그램을 설정하여 남북의 문화차이를 간접적으로 느껴봄으로써 진정한 남북통합이 필요함을 제기한 점이 타 작품과 차별화 성공.

〈제작 시 일화(에피소드)〉

촬영기간과 시험기간이 겹쳐서 독서실이 아닌 동아리 룸에서 함께 편집을 하면서 시험공부를 했었다. 시험결과는 당연히 잘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상을 차지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

주인공이 북한 교환학생 역할로 나오는 만큼, 여주인공 연화의 북한말 발음이 어색해서 촬영도중 웃음이 나오기도 했었다. 많은 NG 끝에 최종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연화의 역할과 말투가 꼭 북한 학생같다는 평을 들었을 때 보람있었다.

북한의 학생복과 이연화 명찰을 마련하지 못해 주인공인 함진주 학생의 교복을 입고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 때문에 이종두 선생님께서 리얼리티가 없고 관객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영화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과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출연자들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소품 하나하나까지 신경써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학생들의 통일관심은 교사하기 나름”

Q 실제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통일관련 관심도는?

A 고등학교에서 통일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은 도덕 교과를 가르치고 있지만 통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수업시간에 조별로 '통일UCC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교사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Q '교사하기 나름' 이라면 구체적으로 행동화한 예를 든다면?

A 학생들의 호응도를 보고 마음만 먹으면 통일영화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사실 예전부터 영상제작 동아리 학생들과 통일영화를 제작하고 싶었는데 마침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청소년통일영상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동아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자 쉽게 동의했다. 학생들이 대견스러웠다.

Q 학생들이 본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A 북한 청소년들의 언어와 문화생활을 조사하면서 남북의 문화적 이질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공감하였다고 한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작품을 만든 것을 계기로 하여 북한을 좀더 폭넓은 시각에서 보는 관점을 길렀으면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날로 늘어나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남한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실천하는 태도를 지니기를 기대한다.

Q 내년에도 본 영상제 출품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계획은?

A 물론 우리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올해 경험을 잘 살려 내년에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이종두
누원고등학교 · 대상 수상작 지도교사



강원지역 고등부 · 통일부장관상

통일선전의 봄은 머지않았다

“여기에서는 남쪽도 북쪽도 없네. 그러니 한 식구처럼 편하게 지내라.”

오사카 조선고의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된 일본 남학생의 시각에서 재일 조선인 사회를 그려낸 영화 '박치기'에서 북한 출신 재일교포가 일본으로 밀입국해 들어온 남쪽 학생에게 한 인사말이다. 비록 몇 초뿐인 화면과 대사였지만 이 짧은 말 한 마디에 가슴 한 편이 아려왔다. '저들은 벌써 서로를 하나로 받아들이고 사는구나!' 하는 부러움보다도 '왜 우리 민족의 화합과 상생의 장이 남의 나라 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라는 탄식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착잡함으로 뒤척이다 잠든 나는 이 날의 일을 가슴 한 편에 묻어둔 채 있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슴속에서 그 명대사를 다시 이끌어낸 또 다른 영화가 개봉되었다. 재일 조선인 학교의 일상을 담

은 '우리 학교'가 바로 그 영화이다. 지금까지 재일 조선인들의 삶을 조명한 영화는 수없이 많았지만 대부분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았다. 평범하지 않은 학생들의 평범한 학교생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는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인공기 배지를 가슴에 달고 '수령님'의 초상화가 높이 게양된 학교에 다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이 아닌 '조선인'으로 불렀다. 남쪽 출신인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도 서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미소를 건넨다. 남의 나라 일본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들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정작 우리의 땅에서는 지금 어떠한가? 국내 유명 일간지의 칼럼리스트는 북쪽 동포들을 굶겨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자 말하고, 여의도의 정치가들은 남북 정상 회담을 대선에 연관시켜 정치적 도구로만 보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황금어장을 한 뼀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신동엽 시인에게서 40년 전 말했던 '껍데기'와 '쇠붙이'들로 우리 땅이 메워져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축구경기 때에 목청껏 함께 내지르는 응원구호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개막식 때면 매번 볼 수 있는 남북한 동시 입장과 같은 풍경은 우리 민족에게도 화합과 평화의 봄별이 비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각종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여러차례 남북한이 동시 입장을 한 바 있으며, 북측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가능해졌다. 금강산에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 중에 있고, 국내 관광업체를 통해 개성과 내금강 지구의 관광이 곧 본격화 될 것이며, 개성공단은 이미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또한 금강산에서 영화 '황진이'의 시사회가 계획되어 있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60년만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통해 남북의 기차가 서로 오갈 수 있는 시범운행에 성공했다. 남북한 철도가 연결된 후에도 여러 차례 미뤄져 왔던 시범운행이라 더욱 뜻 깊다. 아직은 경의선 쪽의 열차 통과시간표가 포화상태이고 동해선 철도가 남쪽 제진역 까지만 건설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몇 년 후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부산에서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1990년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은 상호여행, 서신왕

래, 방송교류를 활발히 하여 통일의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두 진영간의 엄청난 소득격차로 인하여 서독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통일은 착실한 준비와 든든한 기반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어야 한다.

신동엽 시인의 '봄은'이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제 올 /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 우리들 가슴속에서 / 움트리라 // 움터서, /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 눈 녹이듯 흐물흐물 / 녹여 버리겠지'

이 시가 말하듯이 이제 올 평화와 통일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고 두 손엔 총 대신 꽃을 들고 다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맞대고 '미움의 쇠붙이' 들을 녹여버릴 동포애로 화합해야만 한다. 일본 땅에서 그들이 보여준 사랑을 우리 가슴에도 하나씩 지닐 수 있다면 불신과 미움으로 얼룩졌던 휴전선에도 봄은 머지않았다. 우리는 통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①

최종휴 강릉고등학교 2학년



북한산은 신토불이



“엄마, 중국산 말고 북한산도 있네?”
“그럼 우리 북한산 호두를 사먹을까?”
“네, 그런데 북한산은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될 것 같은걸요.”

“아직은 안돼, 하지만 통일이 되면 당연히 그렇겠지?”
오늘 아침 신문을 펼치니 ‘북한에 밤나무를 심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 왔다. 그 기사는 한 소년에 관한 것이었는데, 재미교포인 그 소년은 미국에 살면서도 북한의 사정을 안타까워해 북한에 큰 밤나무숲을 만들자고 미국 의회에 건의하였다. 밤나무를 심으면 환경에도 좋고 북한 사람들이 쌀 대신 밤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멋진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나도 열차에 한 가득 묘목을 싣고 북한으로 가 함께 밤나무를 심고 싶었다.
지난 5월 17일 경의선 · 동해선 열차의 시험운행이 있었다. 이제 시험운행이 아닌 정기운행을 해야 한다. 정식 열차가 개통하면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고, 북한 관광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에 밤나무 묘목을 싣고서 북한으로 갈 수 있다.

우리는 북한에 밤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며 보살펴야 한다. 한 그루, 한 그루, 우리가 심은 밤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밤나무는 아름다운 환경, 시원한 그늘과 더불어 맛있는 밤을 선물할 것이다. 큰 밤나무숲이 나무 한 그루마다 밤이 가득 열리면 북한친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일부분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면 된다. 우리는 그 밤을 사먹음으로써 입안 가득 밤나무를 씹고 가꾼 보람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밤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오는 데에 외화를 낭비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사정이 어려운 북한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지금도 시장에 나가면 많은 중국산 농산물 가운데에서 도라지 · 고사리 · 잣 · 호두 · 땅콩 등과 같은 북한산 농산물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대량으로 들어오는데다가 값도 싸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 따라서 우리는 약간 더 비싸더라도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땅, 북한 땅에서 난 신토불이 북한산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

우리는 식량이 모자란 북한에 쌀을 보내준다. 하지만 직접 북한으로 가서 같이 농사를 짓고, 모내기를 도와주기도 한다. 또 우리의 농기구를 가져가 발달된 농사법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해져야 한다. 많은 신식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 뛰어난 품질의 북한 특산물을 재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해야 한다. 개성의 고려인삼, 대동강의 송어, 그리고 신평 명란젓 등은 세계적인 수출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북한산 도라지’ ‘북한의 고사리’ ‘북한의 호두’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북한산 산물들이 ‘국내산 도라지’ ‘국내산 고사리’로 표기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통일의 길에 밤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나갈 것이다.

초코파이情

“들 어보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꼭 초코파이 같더라고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보다 특이한 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한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사람들은 가운데에 울타리를 쳐놓고 서로 말을 걸어도 안 되고 만나면 더더욱 안 된대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일본이랑은 만날 수 있다고 해놓고 저너머 미국이랑도 만나면서 왜 별로 높지도 않은 울타리는 넘지 못하는 걸까요.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 마치 한 덩어리의 초코파이 같았어요.”

먼저 한국은요, 초코파이에 있는 마시멜로우 같은 휴전선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해요. 그 마시멜로우를 뜯어내려고 해도 자꾸만 붙어당겨요. 하도 오랫동안 익숙해진 나머지 뜯어내려고도 안해요.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너무 어색할거예요.
그리구요, 그 초코파이 속 마시멜로우는요,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거래요. 정말 휴전선이란 똑같죠? 그것도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아도 없어지지 않는 마시멜로우처럼 지금 강산이 6번이나 바뀌려 하는 동안에도 쇠창살이 아프게 계속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한국은요 초코파이의 그 초콜릿 코팅처럼 이산가족의 눈물을 머금은 먹구름이 끼어있어요. 이 초콜릿 코팅도 마시멜로우처럼 떼어내려 해도 안 떨어져요. 빨리 떼어내지 않으면 다 녹아버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을 텐데 왜 그

냥 그걸 가만히 보기만 하는 걸까요.
또 우리들이 그런 아픔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아직 부족해요. 초코파이를 먹을 때도 한 입 베물어 먹고 그냥 내버려두면 빵은 다 딱딱해지고 마시멜로우도 굳어버리고 초콜릿도 다 흘러내려와서 굳어버려요. 만약에 남북이 어물쩍 어물쩍거리면 어쩔 수 없이 통일은요, 자꾸 미뤄만 질꺼예요.
제 생각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사랑하는 만큼, 그 초코파이를 먹어온 시간만큼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이런 독특함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아래쪽밖에 구경을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 울타리를 넘을 수만 있다면 2배는 더 좋은 걸 구경했을까 아니에요.

초코파이에는 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한국이 그 情이라는 글자에 담긴 뜻처럼 서로 마음의 고리를 연결해서 울타리를 치워주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다시 왔을 땐 한반도 위에서부터 끝까지 구경할 수 있겠죠?



할머니와 바람이야기

오 늘도 바람이 불니다. 오늘도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바람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는 5살적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맞벌이이신 부모님은 바쁜 일 때문에 나를 신경 쓸 여유가 없으셨고 나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부모님을 뵈 수 있었고, 어린나이에 부모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 할머니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나의 할머니는 정말 고우시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늘 나를 이해해주시고, 감싸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어째선지 내 눈엔 슬프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내가 할머니께 맡겨지던 첫 날, 나는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예의 그 슬픈 미소를 지으시고는 대답하셨습니다.

“저 멀리에 계신단다.”

“멀리 어디요?”

“새하고 바람은 갈 수 있는 곳이지.”

그 때 할머니가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셔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서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할머니는 종종 낡은 상자를 꺼내시고는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때론 웃음 지으시고 때론 얼굴을 붉히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읽고 나시면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시며, “할머니랑 언덕에나 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역시 언제나처럼 활짝 웃으며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낡은 편지들

을 읽어보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나는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읽고 난 후 언덕에 가실 때 내 손을 꼭 잡으시고 바람을 맞으시며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비야, 할머니는 바람이 되고 싶구나.”

“왜요?”

“저 철조망을 넘어 날아가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손수건으로 눈가를 두드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저지? 은비 할아버지가 써 주신 편지가 들어있지.”

“언제 쓴 편지요?”

“옛날, 옛날 은비 태어나기도 전에 쓴 편지이지.”

“할머니, 나도 그거 읽어보고 싶어요.”

“은비가 할머니가 하는 말 알 수 있을 때가 되면 보여줄게.”

그 날 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6·25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18살 때에 은비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지. 그리고 스무 살 때 결혼을 했단다. 그런데 은비 엄마가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난거야. 은비 할아버지는 군인이 되고, 할머니는 도망을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 할아버지가 어디 살고 계신지는 커녕 살아 계신지 여부도 모른단다. 살아라도 계시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왜 할아버지 만나러 못 가요? 찾으면 되잖아요!”

“할머니도 찾고 싶단다. 하지만 저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어.

우리는 저 너머로 갈 수가 없단다. 통일이 되면 좋을텐데...”

“통일이 뭔데요?”

“통일이 되면 저 철조망이 없어져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어쩌면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올지도 모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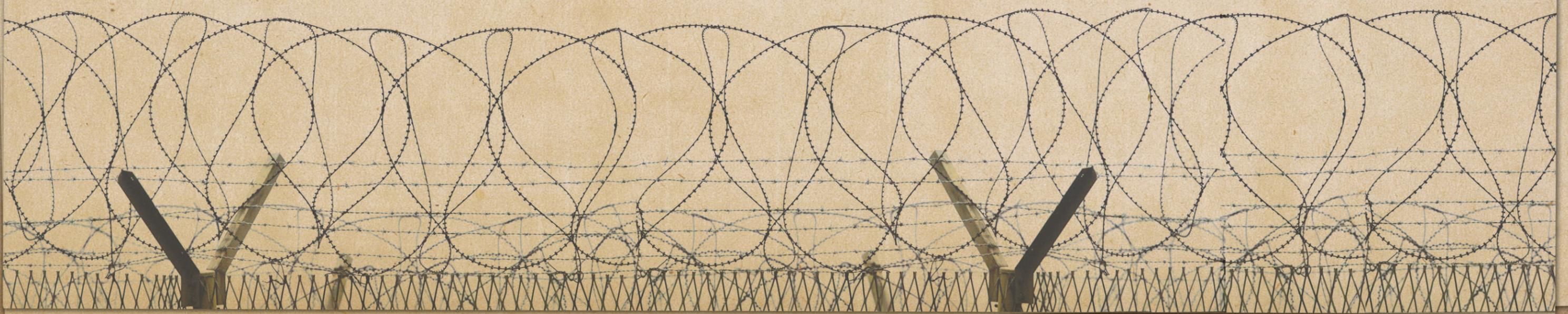
할머니의 눈물을 보자 나 역시 울면서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이렇게 할머니 딸인 엄마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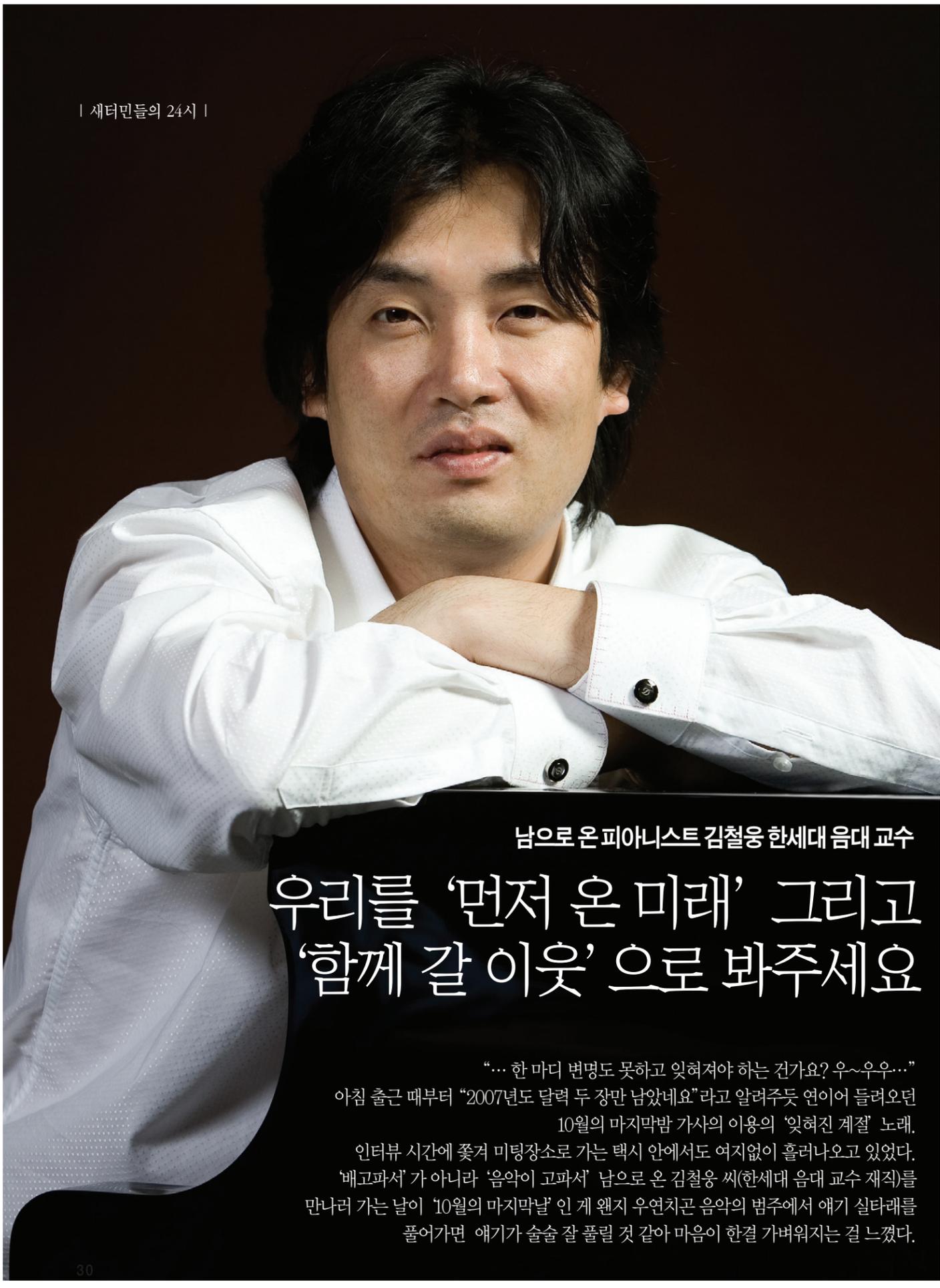
할머니의 그 낡은 편지는 할아버지의 연애편지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셨을 두 분을 전쟁이 갈라놓았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할머니께서 꿈에선 바람이 되어 철조망 저너머 북한 땅에서 할아버지를 뵈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이 제가 살아있을 때 올까요?

나는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대답합니다. 내 소원은 통일이라고, 무슨 그런 식상한 소리를 하냐고 질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지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나이기에 그것은 그냥 식상한 소원이 아닙니다. ‘통일’ 말만 들어도 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머니처럼 바람이 되고 싶어 하시는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분단의 현실은 살에 직접 닿는 아픔입니다. 과연 통일은 언제쯤이 나올까요?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사라질 날이 언제에나 올까요. 제발 그 통일이라는 감동적인 미래가 빨리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양산중학교 3학년





남으로 온 피아니스트 김철웅 한세대 음대 교수

우리를 ‘먼저 온 미래’ 그리고 ‘함께 갈 이웃’으로 봐주세요

“... 한 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우~우우...”
아침 출근 때부터 “2007년도 달려 두 장만 남았네요”라고 알려주듯 연이어 들려오던 10월의 마지막밤 가사의 이용의 ‘잊혀진 계절’ 노래.
인터뷰 시간에 쫓겨 미팅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조차 여지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배고파서’가 아니라 ‘음악이 고파서’ 남으로 온 김철웅 씨(한세대 음대 교수 재직)를 만나러 가는 날이 ‘10월의 마지막날’ 인 게 웬지 우연치곤 음악의 범주에서 얘기 실타래를 풀어가면 얘기가 술술 잘 풀릴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피아니스트 김철웅씨.

포털사이트 검색창으로 ‘새터민 음악가 김철웅’을 치면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너 페이지는 쉽게 훌쩍 넘기는, 이젠 남한에서 그를 알아보는 이가 적지 않은 유명 음악인 김철웅씨(33). 국내 중앙일간지를 비롯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의 탈북 이야기와 음악세계에 대해, 그리고 새터민 관련 등 다양한 사회활동들이 이미 세인들에게 많이 알려진지라 이번 호 인터뷰 내용이 자칫 기존 것의 ‘재탕 삼탕’으로 싱거워지는 건 아닌가 하여 조금 전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덕에 가벼워진 마음 한 편으로 ‘통일지향의 남한과 북한 사람’ 관계 속에서 그를 봐야겠다는 판단이 서자 이내 긴장감이 온 몸을 감아왔다.

당 고위간부 아버지와 대학교수인 어머니를 둔 최상위 계층의 평양시민으로 북한에선 ‘보통사람’이 분명 아니었을 그를 만난 건 동교동의 어느 빌딩 10층에 있는 교회 기도실이였다. 긴장감이 풀림 처음 맘 먹은 대로 음악 범주에서 얘기 실타래를 풀고자 첫 질문을 음악쪽으로 던졌다.

남한과 비교, 예능계 특히 음악계의 교육정책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글쎄요... 모든 교육전반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선택’ 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국가가 선택’ 한다는 것입니다. 인재발굴 육성을 보더라도, 소위 대학간부과라는 곳에선 직접 지방 각지를 순회하면서 8~9세 어린나이의 우수 인재를 조기발굴, 국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관리하는 교육 과정과 정책은 남한보다도 정교하면서도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계무대에서 북한의 음악수준에 대한 평가 대표적인 북한출신 음악가를 든다면?

남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라얀지휘콩쿠르·차이코프스키국제콩쿠르 성악부문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지요. 지난 97년 작곡한 **故 백고산** 바이올리니스트의 경우 57년 제1회 차이코프스키국제콩쿠르 영예상에 이어 82년 특등상을 수상했는

데 82년 수상곡인 ‘아리랑 변주곡’은 지금도 세계 음악인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78년부터 차이코프스키국제콩쿠르 종신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바이올린 부분의 대가로서 손색이 없었던 분이시죠. 북한의 대표적인 악단으로는 ‘조선 국립교향악단’을 들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음악세계를 추구하는 예술가 한 사람으로서 탈북 후 비로소 알게 된, 북한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본인음악의 한계성에 대해 발견한게 있다면?

남한으로 온 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료가 무제한 개방되어 있다는 것과 장르의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음악활동이었습니다. 이 말은 ‘주는 대로’가 당연하고 그것에 익숙해져있던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천지 그 자체였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시야가 좁게 성장했는가라는 것과 맘도 생각도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느냐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만큼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제 그 한계를 알았기에 극복의 노력 역시 가열차게 해나갈 겁니다. (입가에 쓴웃음이 지어졌던 그의 표정이 이내 이 악다문 의지로 변하고 있었다)

(타 매체에서 많이 다뤘지만 탈북과 개인신상에 대해 묻고 싶어 시각을 달리해 질문 몇 가지를 던졌다)

북한을 탈출, 처음에 정착한 마을이 연변 조선족 자치구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그 곳 조선족들은 같은 민족 같은 동포로서 호의적이었는지?

두만강 인근마을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다만 어딜 가든 ‘해코지’ 하려는 무리는 있는 법인데, 그들 입장에서선 ‘정당치 못한 자를 당국에 신고하는 게 온당’하다고 여겨졌겠지만, 당시 나로서는 ‘중국 조선족도, 그렇다고 남한사람도 아닌 도망쳐 나온 북한사람’으로서 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술회하지만 그때 그 당시는 사방이 온통 까만 밤, 또는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 한복판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듯한 외로움이 죽기보다 참기 힘들었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음악’이 고팠다

김철웅씨는 8살의 어린 나이에 69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북한 최고음악학교인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입학한 음악신동.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에 유학 온 그는 그때까지 듣지 못했던 피아노 한 곡에 의해 운명이 바뀐다. 러시아 어느 카페에서 우연히 듣고 흥분해 그 곡의 곡명을 묻는 그에게 “당신, 정말 음악 전공하는 사람 맞느냐?”며 핀잔을 주며 카페주인이 알려준 곡은 바로 리처드 클라이드만의 ‘가을의 속삭임’이었다. 라흐마니노프 같은 19세기말 이후 곡 모두가 금지곡으로 되어 있는 북한. 그런 북한 음악세계 속의 자기존재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진 그는 2001년 10월 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질문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특권층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부모형제마저 저버리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음악 때문이었죠. (그때가 생각나는지 후~하고 한숨을 들이 쉬더니만) 더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 일가 찬양일색인 '연주 기계'가 되어 버린 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내 자신의 원래모습 '피가 흐르고 숨을 쉬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다양한 음악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러시아 유학이후 현대음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보위부 경호(시말서 쓰기를 수 회 반복했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대음악을 곧잘 연주해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는데 탈북결심의 직접적인 일이 생기게 되죠...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사건이라면?

(웃으면서) 북한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려고 연주연습을 하다 발각되었는데, 그때 연습했던 그 곡이 바로 러시아 유학시절 내게 전율로 다가왔던 현대음악 장르의 리처드 클라이드만의 '가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라도 8~9명은 죽히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대의적으로 그 활동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혹시 음악전공 새터민들과의 특별한 모임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남한정착 관련(음악활동 포함) 바람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는 이렇다할 활동이 없으나 가칭 '통일 트리오'를 구성, 국내외 연주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남한생활 더군다나 남한과 자유세계의 음악을 빨리 이해하고 싶어 대학문을 두드리는 음악도 새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재단 운영이나 학비 지원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합니다.

남한행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가장 힘든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남한사회에 가장 바라는 사안이기도 합니다.(웃음) 제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기회를 달라는 말로 바뀌 표현해도 되겠네요. 주면서 색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받을 땐 있는 그대로 봐 달라는 말

본인이 보기에 남한 대학생들과 학문접근 방식은?

북한과 비교할 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누구에게나 능력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서 그런지 사고영역이 매우 광의적이고 어떨 땐 당돌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자유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이겠죠. 다만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붕어빵'이 되려는 세태와 이를 방관조장하는 학문형태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수법에 있어서도 스스로 표현하고 냉정하게 지적했던 북한과는 달리 소위 '교수평가제'를 의식, 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지금 석사과정 중인 것으로 하는데 석사논문 내용은?

네. 논문학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석사논문 제목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에 대한 연구'입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는 말에 "그럼, 바흐나 베토벤처럼 세계적인 樂聖관련 논문이겠군요?"라고 문자 웃으면서) 아니요, 김일성 일가가 지은 곡에 대한 연구입니다. 북한에서 '불후의 명작'이란 명칭은 김일성 관련 업적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하하하!!(나도 덩달아 웃음)



남한으로 온 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료가 무제한 개방되어 있다는 것과 장르의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음악활동이었습니다. 이 말은 '주는 대로'가 당연하고 그것에 익숙해져있던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천지 그 자체였지요

너무 많은 관심과 지원도 원치 않습니다. 새터민을 벼농사에 비유하면 '모판'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을 것이요, 적게 주면 말라죽는 모판 같은 존재라고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한국행이 성공하기까지 중국체류 중에 있었던 일은?

흑룡강성에서 잡부, 벌목공으로 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조선족 교회에서 반주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등 교회활동을 하면서 한국행 기회를 엿보던 나는 한국행 시도 두 번 모두를 실패하지요. 북으로 끌려가다 한번은 북송기차에서 뛰어내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또 한번은 목숨을 건 지인의 은혜로 가까스로 북한을 다시 탈출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충격에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세상을 달리하셨지만 그 소식을 중국체류 중 듣고도 2남중 장남인 저는 상주임에도 임종을 못 본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새터민 중에 예술계, 특히 음악부문에 종사하던 자들이 많은지?

네. 의외일지 몰라도 꽤 있습니다. 가깝게는 올 4월 제가 다니던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여자 후배 하나가 탈북에 성공, 지금 이화여대 음악대학원 입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은 몰

이지요. 예를 들어 처음엔 "야!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새로운 차원의 순수미가 엿보여" 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다가도 그 아이템 발제자가 새터민임을 알게 되면 돌연 "어쩐지 촌스럽더라구" "북한 애들은 한계가 있어" 등으로 폄하하기 일쑤지요. 그러한 행태는 우리 새터민들을 '딴나라' '상존하기 부담되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정체성 문제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욱더 자신을 고립케 하고 힘들게 한답니다. 하지만 내 경우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피아노가 좋고, 하고 싶은 음악을 해서 좋은 것과 지구촌 동시대 음악인 중 작품과 연주에 녹여낼 수 있는 값비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여기기에 가능하답니다.

(북한 교육체제에서 성장한 그의 눈에 비친 남한의 대학사회가 궁금했다)

좌우명과 삶의 목표, 그리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꼽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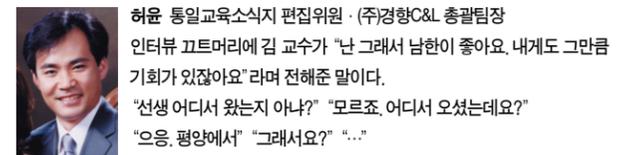
좌우명은 '곰추가자'이며, 삶의 목표는 통일된 다음 첫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첫째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는 것, 둘째 내 형제, 내 친구들이 살고 있는 평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것, 마지막 셋째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통일연주회'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매거진 지면을 빌어 남한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새터민들을 하늘에서 툭 떨어졌거나 탄세상 사람 보듯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탈북자들을 '먼저 온 미래' 그리고 미래를 '함께 갈 이웃'으로 보시고,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겪어야 할, 그리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해결 단초를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라고 여겨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관심과 지원도 원치 않습니다. 탈북자를 벼농사에 비유하면 '모판'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을 것

이요, 적게 주면 말라죽는 모판 같은 존재라고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한세대 음대 교수로서 대학강의 외에도 남북음악교류재단 기획위원, 남북평화재단 실행위원 등의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그는 연주와 창작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병행, 그 결실로 내년 상반기 창작곡 음반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12월 13일 압구정 장천 아트홀에서 개인 연주회를 개최한다)



북녘으로 이어진 뜨거움 · 나눔의 '천사띠'



 (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 2006년 11월 10일 (주)빙그레
- 11월 17일 포스코건설
- 11월 17일 알리안츠생명 신우회
- 11월 28일 기업은행
- 12월 02일 법무법인 지평
- 12월 04일 증권예탁원
- 12월 11일 대한석탄공사
- 2007년 01월 11일 SK(주)신입사원
- 01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
- 10월 06일 우리은행 외환서비스센터
- 10월 08일 한화 드림파마
- 10월 11일 삼성중공업



짧게는 같은 날에, 길어도 열흘을 넘기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뜨거움과 나눔의 현장들... 그 뜨거움과 나눔의 현장열기를 3년째 한반도 허리 위 북녘 땅까지 잇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어 이 겨울 차가운 바람에도 훈훈한 인간애와 동포애를 느끼게 한다.

'함께 나누는 연탄 한 장, 우리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연탄 한 장으로 에너지난으로 힘들어하는 북한주민들과 우리사회 어두운 그늘 아래에 있는 이웃들에게 용기와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사람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의 회원이 그 주인공들이다.

지난 2월 4일 남과 북에 전달한 연탄량이 1천만 장을 돌파, 이를 기념하는 '연나운' (연탄나눔운동 약칭)의 축하행사가 서울 신림동 밤골마을에서 있었다. 이날 기념식의 주요행사 역시 변형운 이사장과 방송인 김미화씨가 함께 연탄을 나르는 것이었다. 창립(2004년 6월)한 지 2년 6개월만의 이 기록은 지난해 겨울 연탄 한 장 값이 300원이었으니 '300원의 연탄 한 장 한 장이 쌓여 만든 30억 원'이라는 수치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고, 그만큼 크다.

육지의 막다른 곳은 어딜까? (공감하겠지만) 탄광 막장이 아닐까. 그렇게 자기 몸도, 생활도 고단한 광부들 손에서 전달된 7천만 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시작된 이 모금운동 참여회원 수는 이제 매월 얼마씩 후원하는 후원회원과 자기시간을 쪼개 배달 봉사를 자처하는 회원 등 모두 17,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로는 유치원 꼬마원생들로부터 초등학생 · 중학생 · 대학생과 회사원, 그리고 주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유치원 원생회원의 모금참여 한 예로 강원도 강릉시 소재 초등학교 5군데의 병설 유치원생들이 모금 바자회(2006년 10월)를 열어 전달해주었으며, 올 여름에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 5, 6학년 8개 반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내 저금통에 모았던 것을 전달받기도 했다. 현재 회원 중 최고령자는 연나운의 손장례 고문과 변형운 이사장이며 여든 나이에든 본 활동을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다.

연나운의 북한 연탄지원은 매달 2~3회 개성과 금강산 근처 북고



성 온정리 마을에 전달되고 있는데, 매회 5만 장(25톤 트럭 8대분)씩 지원하고 있다.

석탄매장량이나 생산량이 우리보다 많음에도 절대부족의 석유 대체용으로 채굴된 석탄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용으로 사용되다보니 북한 주민들의 생활용(난방 및 취사용)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에너지의 막대한 고리를 얼마간이라도 끊기 위한 지원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4월에는 앞의 두 지역 산에 나무심기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 4월에도 다섯 차체에 걸쳐 개성 진봉산 자락에 잣나무 10만 본, 금강산 슬기님이 고개에 1백여 명이 참가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와 올해의 북한지역 수해가 컸던 바, 연나운의 연탄지원을 통한 나눔의 운동이 쌀 등 다른 재화로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전남 강진의 모 교회의 경우 연탄나눔 동참행사 이후 북한의 수해소식을 접한 지난해에는 강진일대 생산 쌀을 구매하여 8천만 원 상당의 쌀을 북에 전달, 남측 농민들에게 판로를 열어주는 한편, 북측엔 구호식량을 지원하는, 남과 북 모두 윈-

윈 하는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후 전북 고창에선 이를 벤치마킹하여 1억5백만 원 상당의 쌀 54톤을 구매, 북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때 북측 관계자는 “남측 정부나 적십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양의 쌀을 지원받기는 처음”이라며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8개 권역(강원도, 충북, 대구·경북, 충남, 경인, 전북, 전남, 대전)별 지부와 준비위원회를 두고 있는 ‘연나운’의 지부운영 패턴 역시 특이하다. 1~2년 동안 중앙의 지원 아래 연탄배달 봉사를 한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 등이 3년차부터 자체 모금활동을 전개할 경우 해당모금액 만큼을 중앙에서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연탄나눔’ 운동을 핵분열시키고 있다. 즉, ‘1+1’이 2가 아니라 4, 8, 12... 등으로 확대 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 정대진 객원기자
여든 나이에 본인도 힘들텐데 왜 후원하고 봉사하느냐는 질문에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더기빠요” 라는 어느 할머니 회원의 말에서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북한미술(회화)의 장르별 특징

전체주의적이며 집단적인 성향 일색

공직자와 같은 등급제

1. 북한미술의 특성

예술은 인간의 삶에서 물질적 필요를 넘어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활동으로, 작가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고 하겠다. 분단 이후 남북한 미술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요인은 이른바 ‘자유’의 유무에서 기인한다. 남한의 경우 시대에 따라 부분적인 제약이 있긴 했지만 예술적 표현이 자유로웠던 반면, 북한의 경우 시종일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때문에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 예술이라기보다 국가에서 정해진 ‘주체문예이론’의 틀 안에서 당과 최고지도자의 정권유지 목적에 활용되는 전체주의적이며 집단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이란?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학이론’을 북한의 특수이념인 ‘주체사상’으로 재정립한 ‘주체사실주의미학’의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문예이론으로 북한의 모든 예술창작의 기준이 되는 이론.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학’의 핵심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으로 당성·인민성·노동계급성이 반영된 형식적 특수성과 이념적 보편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북한 미술가들은 대부분 집단창작사인 만수대창작사·중앙미술창작사·경공업미술창작사·백괴미술창작사,·철도미술창작사 등에서 공동 및 개인작업을 하고, 그곳에서 제작된 작품의 유통 및 평가, 수용·감상·판매 등 실천영역까지도 국가에서 관장한다. 또한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는 노력영웅·김일성상 계관인상(김일성의 얼굴을 그리거나 동상을 제작하는 자)등의 명예칭호가 부여되며, 모든 미술가들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1~5급까지 등급제로 되어있다.

‘일반’ - ‘주제’ 미술로 대별

2. 북한미술의 종류

북한미술은 회화(조선화·유화·판화·보석화 등), 조각(목조각·금속조각·환조·소조·부조 포함), 공예(수예도자기·금속공예·목공예 등), 판화로 나누어지며, 각각 ‘일반미술’과 ‘주제미술’로 대별된다. ‘일반미술’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사상이 드러나지 않고 정치성이 내포되어 있는 미술이고 ‘주제미술’은 당에서 각종 주제를 부여하고 주제에 맞춘 제작하도록 지시한 미술로 한눈에 정치성과 사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선전용 미술을 말한다.

3. 북한미술(회화)의 장르별 감상

(1) 조선화

조선화는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의 농담이나 채색의 강약으로 사물의 형태를 몰골기법으로 그리는 동양화의 일종으로 구름법과는 대별되는 용어이다. 몰골법(형태의 윤곽선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색채나 수묵으로 그리는 화법)과 구름법(형태의 윤곽을 선으로 그린 다음 그 안을 채색으로 메우는 기법)은 동양화의 전통기법으로 한국에서는 ‘한국화’(동양화), 중국에서는 ‘국화’, 일본에서는 ‘일본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화는 지역적 명칭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연탄불패 신화는 계속 될 거예요”

Q ‘연나운’ 활동하면서 가장 마음 좋아하는 때는?

A 혹시 연탄 날라보셨나요? 연탄은 비와는 상극입니다. 북에 갈 때면 일기예보와 그날의 날씨 변동에 촉각을 세우게 됩니다. 북은 물류시간과 배분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하역과 배분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그냥 그대로 다시 신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Q 반대로 북으로 연탄을 지원하러 가면서 짜릿할 정도로 기뻐했던 때는?

A 작년 여름 고성 수해지원 때나 올 6, 7, 8월 개성 지원 시 내리던 빗줄기가 조마조마 하는 내 맘을 알았는지, 북측 출입국 관리소만 들어가면 약해지고 하역장소에 다다르면 비가 똑 그쳐주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자 나도 모르게 두 손 불끈 쥐면서 내뿜은 말이 있죠.(웃음) “연탄불패의 신화는 계속 된다!”

Q 실제로 연탄을 신고 방문을 할 때 북측 반응은?

A 어느 NGO단체에서나 비슷한 경험을 했겠지만 주민과의 접촉자제를 엄격히 제한했던 지라, 처음엔 하역작업을 하는 북측 주민들과 10여 미터 이상 멀찌감치 떨어져서는 물끄러미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지난해

부터 공동하역을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데운 물을 비누와 수건과 갖다 주더군요. 그리고 요즈음 그러지 말고 같이 씻자고 하면,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처음 태도와는 달리 이전 농담도 해가면서 웃으며 같이 씻습니다. 물론 사진도 같이 찍고요.

Q 정부당국이나 일반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사업에 있어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빠른 시기 안에 해결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퍼주기식’이 아니라 국민의 인식전환이 아쉽네요. 북측 주민들과 함께 연탄 하역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정말 무조건 갖다 줘야한다”고...

Q ‘연나운’ 과의 인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A 정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친 내 육신과 마음에 늘 활력소가 되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탄을 들고 내리는 공동 하역장에서 “북과 남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라고 외치는 북측 주민과 그 옆에서 “그럼요!”라며 시꺼먼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남측 회원들이랍니다.



윤유선 실장



〈그림1〉은 '현실을 보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소' 라는 작품이다. 김상훈 리틀선 김재혁 박진수 등 인민예술가들이 1980년에 만수대창작소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이 그림은 가로가 3m가 세로가 2m에 이르는 대형 작품이다.



〈그림2와 3〉은 조선화가 선우영 화백의 '금강산'이다. 조선화 형식의 이 그림은 금강산을 몰골법으로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가을날의 금강산과 초봄의 금강산 풍경을 한지위에 먹과 채색으로 그렸다.



그림이 두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다. 서두에 북한 그림은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그림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정치적인 의도나 형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 누구나 단연 '아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은 '주체미술'로 북한의 '주체문예이론'의 틀 안에서 형식과 내용을 규제받고 있는 그림이다.



(2) 유화
북한에서 유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학했던 일부 지식인 화가들이 제국미술학교에서 배운 서양화 기법을 도입하면서 발전시켜 오늘에 이른다. 분단 직후에는 작가 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화폭에 담아낸 순수조형 활동도 있었으나 김일성이 유화도 '조선화식 유화'를 그리도록 교시한 후부터는 '사실주의 양식'으로 고착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림4〉는 길진섭 등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던 유화파 화가들이 월북 후 1961년에 그린 '전쟁이 끝난 강선 땅에서'이다. 이 시기 북한의 1960년대는 '천리마운동'의 태동기로 볼 수 있으며, 미술에서도 천리마 운동을 선전하는 선전화 및 수령화(김일성 그림) 등을 많이 그렸다.

〈그림5〉는 백화선의 룡악산의 가을이다. 유화로 그렸으나 '조선화'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다. 룡악산은 평양 만경대구역

룡악산동·룡산동·룡봉리 사이에 있는 높이 292m산으로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평양의 금강산으로 알려져 왔다.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 같은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북한의 공산품들의 상표로도 많이 등장 할 만큼 아름다운 산이다.

뿌리가 드러난 거대한 노목의 아름다운 자태 뒤로 범운암이 보이고 멀리는 평양시내가 보일듯 말듯 묘사되어 있다. '룡악산의 가을'이란 주제에 맞게 룡악산 입구의 가을풍경을 한껏 풍기고 있는 한 폭의 풍경화가 노송의 정취를 한껏 자아내고 있다.

(3) 보석화

〈그림 6과 7〉은 보석가루로 그린 보석화다. 보석화는 말 그대로 물감 대신에 청옥이나 홍옥 등 갖가지 빛깔 고운 보석이나 돌을 분쇄하여 만든 천연 광물성 가루소재로 아교물에 개어 색상을 내는 값비싼 물감이다.

전통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사용 흔적을 보이는 천연광물성 안료는 고려에 이어 조선중기까지 상용되다가 조선 중·후기에 서양에서 발명된 화학안료에 의해 후퇴되었다. 금과 맞바꿀 정도의 고가였기 때문에 왕실이나 사찰의 중요한 그림을 그릴 때만 사용하였으나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북한은 최근에 신봉화 화백이 개발하여 상품화하였다. 1988년 중국 베이징 국제 발명전에 처음 출품해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조선 보석화로 명명했다고 한다.

(4) 골뱅이화

천연골뱅이화는 각종 골뱅이 소라나 진주조개 등 패류껍질이나 조개껍질을 밑그림에 맞추어 모자이크처럼 붙이는 일종의 공예적인 그림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않는다. 골뱅이가 많이 나는 황해도 해주에서 1970년대부터 창작되기 시작해서 독자적 형식을 갖추고 발전해왔으며 골뱅이의 특성을 잘 살려 사람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풍경화·인물화 등을 제작하고 골뱅이

화가 신선비는 모나리자, 프리마돈나 등 세계 명화 도상을 이용하기도 한다.

(5) 조선금니화

금니화란 금가루를 아교액에 개어 그리는 그림으로 '인민화가' 황병호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금니화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림기법의 하나로 고려불화 변상도 및 사경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 남한에서는 그 전통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중요무형문화재에 의해 전승되고 있으나 북한은 종교 말살과 함께 종교회화가 끊기면서 전통이 끊긴 후 최근 다시 개발하여 '조선금니화'라는 명칭을 붙였다. 1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림이란 뜻으로 김일성 주석이 '만년화'라고 명명해 주었다고 하는 이 '금니화'는 북한의 국가발명심의위원회에서 특허권까지 부여받았다고 한다.

(6) 수채화

수채화는 말 그대로 서양의 수채물감을 이용해서 그린 투명그림이다. 〈그림 9〉는 인민 예술가 장일남 화백의 백두산 천지를 묘사한 '수채화'이다. 스케치한 연필자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수채화라는 느낌보다는 '조선화'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조선화 식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진인지 그림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보여 한 폭의 풍경화가 주는 서정적인 감동에 앞서 '주체사실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먼저 떠올라 왠지 씁쓸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 밖에 볼펜으로 그린 '볼펜화', 그림의 내용과 부합되는 글씨를 원색적으로 쓰는 '선전화', 그리고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를 대형 모자이크하는 등의 '설치미술' 등이 있다.

진정한 예술은 자율과 과정

4. 맺음말

북한미술은 사실적 표현에 의한 사실화만 있을 뿐 추상 및 비구상미술 등 전위적인 작품

은 단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체사실주의미학'인 '주체문예이론'의 틀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미술은 다양성과 개성이 요구되고 있는 세계의 조류의 형식적 변천에 편승하지 못하고 '조선화' 형식으로 획일화 되어 있다. 때문에 형식적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미술가들은 재료의 실험이나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초점을두어 재료의 발달과 테크닉만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은 규제가 아닌 자율이며 목적이 아닌 과정이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를 추구하며, 아름다움의 원천은 이미 삶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자유를 갈망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가들에게 있어 '자유'란 생명과 같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북한미술에서 '주체화' 보다는 '일반화' 비중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정치이념인 사실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화만을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는 '주체문예이론'의 범주 내에서 작품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남북교류 및 세계조류의 흐름으로 인해 예술 활동에 일부나마 개방이 요구되고 북한의 일부작가들의 해외 전시회도 열리는 등 예술을 둘러싼 변화의 훈풍이 조금씩 일고 있다. 이렇듯 조금씩 변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북한예술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도 변화의 파고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 예견되는 북한미술을 단순히 정치적·사회적 산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만으로는 깊숙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좀 더 포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북한미술의 새로운 형식적 장르가 탄생케 되는 날을 고대하며. 



박미례 서경대학교 겸임교수
북한의 화가들이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을 고대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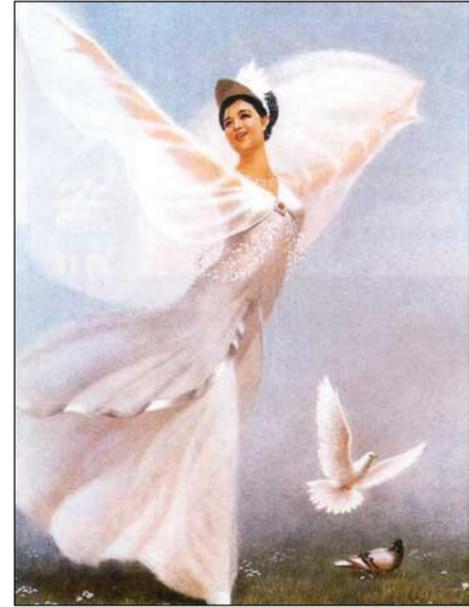


그림6 신봉화/보석화/1989년
그림7 주대식/보석화/백두산 호랑이
그림8 황병호/금니화/100x200
그림9 장일남/수채화/2007년/ 백두산천지

그림1 김상훈 리틀선 김재혁 박진수/조선화/193x300/1980년/현실을 보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소
그림2 선우영/조선화/2007년 8월 영국 La-galleia 전시작품
그림3 선우영/조선화/2007년 8월 영국 La-galleia/금강산
그림4 길진섭 장혁태 송찬형 최창식 집계작 /유화/1961년/전쟁이 끝난 강선땅에서
그림5 백화선/유화/2000년/룡악산의 가을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그림5

그림6
그림7
그림8
그림9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기

유적보존과 체계적 발굴조사 필요성 공동인식 계기

2007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의 일정으로 개성에 남아 있는 고려궁궐터 발굴조사를 다녀왔다. 이번 조사는 역사도시 개성의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학술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발굴은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문화재청,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문화보존관리국의 주관아래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소속 연구자 40여 명이 참여하였다.



새로운 발굴을 시작할 때마다 늘 그렇듯이 설레임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30명의 북측 발굴대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어디선가 한번쯤은 만났던 듯한 낯익은 사람들이었다. 한 동안 눈길이 마주칠 때 마다 머쓱한 웃음만을 지을 뿐 쉽게 말을 붙여보지도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금방 친해질수 있었다. 아마도 같은 동포이기 때문이었으리라...

개성은 500년 고려의 수도로서 왕궁을 비롯한 수많은 무덤과 사찰, 성곽들이 온전히 남아 있는 민족문화의 보고이다. 그 중에서도 '만월대'라 불리는 고려의 궁궐은 당시 정치·사회·경제의 중심지이면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귀중한 유적이다. 우리는 흔히 고려 궁궐하면 '황성옛터'라는 가요와 사진으로만 확인되는 잔디로 정비된 '회경전 권역'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고려의 궁궐은 고려말 흥건적의 침입 때 불탄 이후 복구되지 못한 채 폐허로 변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전각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에 발굴이 이루어진 곳 역시 회경전의 서편지역으로 기록상 궁궐의 정전이었던 '건덕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다.

60일이라는 긴 기간동안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한 고고학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남북의 대표적인 문화재조사기관이 공동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고려사 연구자들이 대거 개성을 방문, 유적·유물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송악산 기슭에 자리한 고려 궁궐은 도선국사가 명당으로 지목한 곳이기도 하나 수많은 전각들이 들어서기에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며 지형이 고르지 못한 단점도 있었다. 이러한 지형상의 문제점을 고려 사람들은 축대를 이용한 독창적인 건축술로 극복하

였다. 여러 축대의 높이를 조절하여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계단과 길을 내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이렇듯 축대의 규모와 높이에 의해서 실제 건물의 규모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을 것이다. 상부 구조물인 지붕과 기둥이 모두 무너져 내린 지금도 잡목과 풀을 제거한 뒤 모습을 드러낸 궁궐터의 웅장함은 필자로 하여금 한없는 상상력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였다.

'가-17호 건물지'는 정월 초하루 등 명절에 임금이 친히 경령전에 나아가 태조실인 제1실부터 5실까지 차례로 들어가 선대 임금을 알현하였다는 '고려사'의 경령전 관련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 중 하나는 남북간 학술교류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 공동발굴은 몇 차례 있었으나 60일이라는 긴 기간동안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한 고고학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남북의 대표적인 문화재조사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조선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고려사 연구자들이 대거 개성을 방문하여 유적·유물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기관 및 학자간 학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자료의 한계에 부딪쳐 연구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기존의 고려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고려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개성이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유물을 직접 보지 못한 채 '고려사' '고려도경' 등 문헌으로만 고려사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발굴은 이와 같은 기존 연구 결과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조사지역내 건물지 배치상황 및 구조를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40여동에 이르는 크고 작은 건물들은 지형적 여건과 건물의 성격에 따라 각각 중심축선을 서로 달리하면서 축대와 회랑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건물내부에 5개의 예단 기초 시설이 확인된 '가-17호 건물지'는 '정월 초하루를 비롯한 명절에 임금이 친히 경령전에 나아가 태조실인 제1실부터 5실까지 차례로 들어가 선대 임금을 알현' 하였다는 '고려사'의 경령전 관련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 건물은 높은 축대와 회랑으로 구분된 제례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평면 'ㄷ' 자형 건물은 중앙 본채와 좌우 곁채(나래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채와 곁채의 주칸거리가 다르며, 본채와 곁채의 도리간 초석이 동일축선상에 놓이지 않은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채와 곁채의 접속부분 초석은 여타 구간 주칸거리에 비해 현저하게 좁아진 구조이다. 이점은 본채와 곁채가 마치 별도의 건물을 서로 이어 놓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다음으로 다종다양한 유물 800여점이 출토되어 고려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이 중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끄는 유물은 높이 65cm의 이형청자와

120점에 이르는 명문기와였다. 이형청자는 원통형으로 양 끝부분이 모두 둥글납작하게 막힌 상태이나 양 끝단의 중앙에 하나씩의 구멍이 뚫려있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와 같은 기형이 보고된 바 없어 흥미롭다. 명문기와는 암수기와의 등문양 위에 명문을 스텐프로 찍어서 표현하였다. 명문내용은 「月蓋〇〇」, 「赤項〇〇」, 「板積〇〇」, 「德水〇〇」등으로 모두 기와의 제작장소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板積〇

〇」, 「月蓋〇〇」명 기와는 '高麗史'에 보이는 板積窯, 月蓋窯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며, 후단의 〇〇으로 표현된 2자는 기와를 생산한 와공의 이름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 발굴에서 출토된 유구와 유물의 보존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북측 연구자들의 모습에서 학자적 동질감과 우리 문화재 보존에 대한 민족적 희망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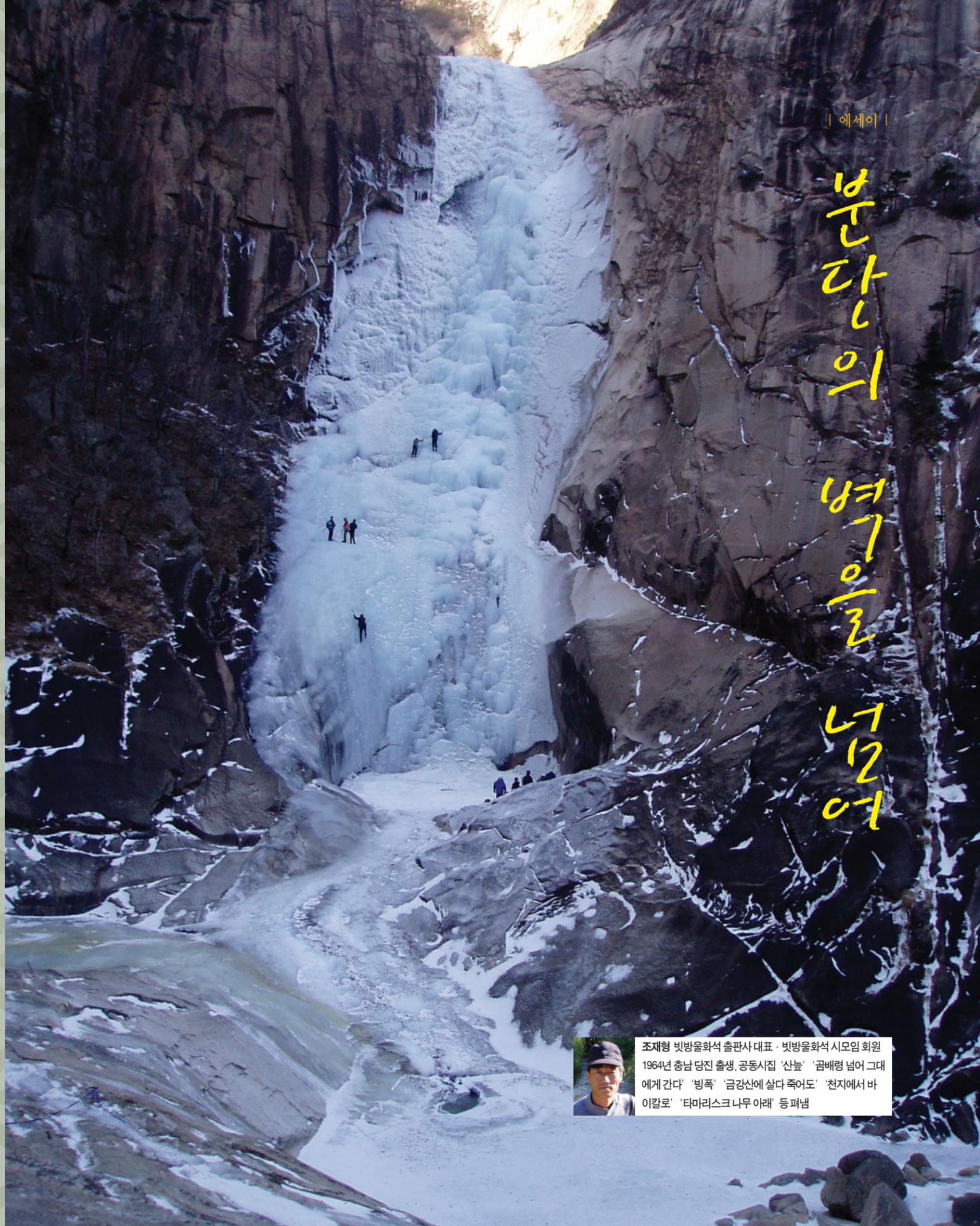
한편 위와 같은 조사성과 외에 필자가 가장 큰 조사 의의로 들고 싶은 점은 남과 북의 연구자들이 얼굴을 서로 맞대고 함께 힘든 발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적의 보존과 체계적인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고려궁궐을 회경전 일곽, 소위 만월대만으로 인식하여 그 주변지역은 마치 고려의 궁성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였다. 이번 조사로 이러한 인식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고려의 궁성유적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전 인류가 보호하여야 할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행히 이번 발굴 결과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고려궁궐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중장기적인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문제를 논의하여 할 시점이다. 이번 발굴에서 출토된 유구와 유물의 보존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북측 연구자들의 모습에서 학자적 동질감과 우리 문화재 보존에 대한 민족적 희망을 보았다. 🌍



이상준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 고려궁성발굴대장 남북관계...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듯.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서로간의 마음이 통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에세이 |

북한강의
빙기
너도
여



조재형 빗방울화석 출판사 대표 · 빗방울화석 시모임 회원 1964년 충남 당진 출생. 공동시집 '산눈' '곰배령 넘어 그대에게 간다' '빙폭' '금강산에 살다 죽어도' '천지에서 바 이칼로' '타마리스크 나무 아래' 등 펴냄

비무장지대를 통해 금강산을 여행할 수 있는 육로 길이 열리던 그 해 가을, 나는 빗방울화석 시인들과 함께 육로로 금강산을 다녀왔다.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의 감격은 금강산 아름다운 경치보다도 뚜렷하게 아직도 가슴속에 설렘으로 남아있다. 그 때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다.

북방한계선 통문을 들어서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그대가 있었습니다
선과 선 지대와 지대에
유전처럼 전해오던 정지된 오십 년 시간 속에서
군복을 입고 이정표처럼 서있는 그대
이름도 고향도 모르는,
물어볼 수도 없는 거리에
창문을 열 수도 없는 금강산 관광버스 안에서
관광증을 여권처럼 목에 걸고
국경 아닌 국경을 넘은 관광객으로 그대는 군인으로
마주치는 눈빛
그대에게 나는 무엇이였을 까요
남측에서 온 적?

다시 마주치는 눈빛
손을 흔들면 흔들수록
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지
그대 눈동자도 흔들리는지
상하좌우 애써 시선을 피하는 눈동자
아리게 박혀올 때
물총새 한 마리 시선을 지우고
높으로 날아들어
흔들리고 흔들리는 여새와 갈대사이
질푼른 물옥잠 피워 놓았습니다
그 푸른빛으로 감호를 지나고
남방한계선을 지나 영랑호를 끼고
고성별에 들어섰습니다

고성별을 가로지르는 금강산행 임시도로 옆
옥수수대 더미 뒤에 숨은 듯
옹기종기 모여앉아
들릴 듯 말 듯 속삭이는
가마중 같은 북측 아이들의 미소가
금강산 가는 길을 환하게 열어 놓았습니다

- 졸시, 〈아이들의 미소로 지워지는 선〉 전문

한 북측 안내원은 빙폭등반을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자기는 비번인데 일부러 근무를 바꿔서 나왔다고 하면서… 등반을 시작할 때 조심하라며 염려까지 해주었고 얼음덩어리가 떨어질 때마다 큰 소리로 낙빙을 외치며 무사 등반을 기원해주었다

처음 보는 북측 군인들에게 느꼈던 긴장된 분위기를 쫓과 아이들을 통해서 풀어 놓고 싶었다. 이념을 버리고 여행길에 올랐던 나 자신도 다른 체제 속에서 서로가 아무 벽 없이 쉽게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잠시 고통이 스쳐갔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넘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이 끌어 오르고 있었다. 버스 문을 박차고 나가 손을 잡고 싶은 심정과 그러지 못하는 정황 속에서 답답함이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에 자연스럽게 녹아 스며들고 있었다.

그 다음 해 겨울 금강산 비봉빙폭과 구룡빙폭을 오르기 위해 금강산을 다녀왔고, 얼마 후 한국등산학교 수료생들과 빙폭 등반을 다녀왔다. 갈 때마다 북측 안내원들은 더 친절히 대해주었다. 처음 빙폭등반을 갔을 때 북측 환경관리원은 우리의 복장을 보고 “빙판 오르려고 왔느냐”고 물었다. 빙판이 아니라 빙폭이라고 했더니 “빙판이나 빙폭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면서 “목숨을 걸고 그걸 왜 하느냐, 안사람이 말리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안사람은 말리다가 이제는 지쳐서 조심하 잘 다녀오라고 한다고 했더니 “못 말리는 사람이군요” 하면서 웃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번째 빙폭등반을 갔을 때, 한 북측 안내원은 빙폭등반을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자기는 비번인데 근무를 일부러 바꿔서 나왔다고 하면서 비봉빙폭 전망대까지 따라왔던 때와는 달리 비봉빙폭까지 와서 아이스 바일을 빌려 빙폭을 찍어보는 관심을 보였다. 등반을 시작할 때 조심하라며 염려까지 해주었고 얼음덩어리가 떨어질 때마다 큰 소리로 낙빙을 외치며 무사 등반을 기원해주었다. 아래 시편은 그때 쓰여진 시다.

연주담은 얼어도 옥빛이다
봉황이 연주담에서 날아올라
세존봉을 넘는 듯
비봉빙폭은 날개를 펼치고 얼어 있다

남측 북측 사람들 시선
비봉빙폭으로 모아질 때
무겁게 끌고 온 선, 선, 선
능선으로 물러나고
비봉의 날개가
우리를 하나로 보듬고 있다

빙폭을 찍을 때마다
그대들의 뜨거운 눈빛
앞서 가고 있다

- 졸시, 〈비봉을 타다〉 전문

그 다음날 금강산에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서설이 내렸다. 그 해 금강산에서 처음 내리는 눈이었다고 한다. 세존봉 등반을 가던 중 옥류동에 도착하자 미리 나와 있던 북측 안내원은 눈덩이를 굴러 손을 흔드는 눈사람을 만들고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반갑습니다” 라는 글씨를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도 눈 위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답글을 써 놓고, 어떤 체제나 이념이 끼어들어 올 수 없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세존봉 등반을 하면서 곱밥을 나누어 먹고 라면을 끓여 나누어 먹었다. 무엇인가 서로에게 나눈다는 것은 배려이며 사랑의 시작이리라.

그리고 그 해 5월 빗방울화석 시인들과 함께 백두대간 금강산 시화전에 참여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2박 3일의 짧은 시화전 일정이었지만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다. 시화전 첫째 날은 구룡폭포 앞 관폭정에서 열었는데 빗방울화석 시인이 시화패널을 지고 가던 중 정겹게 이름을 부르며 등점을 밀어 주던 북측 안내원, 둘째 날 만물상 귀면암 밑에서 시를 꼼꼼히 읽고 “시에서는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말하며 웃던 북측 여성, 금강내기 바람에 흔들리는 시화를 잡아 주던 북측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서 통일의 희망을 읽던 그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지금쯤 금강산에 서설이 내리고 있을 것 같다. 🌧️

남북합작 역사드라마 '사육신' 방영 결산

낮은 '시청률' 임에도 남북방송교류 '물꼬' 의의



KBS 방송 80년 특별기획드라마 '사육신' 이 지난 8월 8일 첫 방송 되어 11월 1일 24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북한조선중앙 TV가 한국방송공사의 외주로 제작 한 최초의 드라마로서, 3.6%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회별 최고시청률은 첫 회분의 7.3%가 가장 높았고, 최저시청률은 1.9%까지 내려갔다. 이는 2000년 이후 방송된 공중파 드라마 시청률 가운데 가장 낮은 기록이다. 더욱이 '사육신' 드라마가 지난 10월 24일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33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방송교류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통일언론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무관심 속에 아쉬운 막을 내려야만 했다.

'사육신'은 북한에서 북한 배우가 출연하고 제작비와 방송 장비 등은 KBS에서 부담하는 외주 형태로 주문 제작해 방송한 드라마이다. 남북방송교류사에서 최초의 드라마 교류협력이라는 6년간의 산고 끝에 만들어진 '사육신'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남북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먼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남북사 회문화교류의 한 분야로서, 남북합작 드라마 '사육신' 논의가 시작되어, 2003년 9월부터 KBS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개성·금강

산 등에서 본격적인 접촉을 가져왔다.

“북한은 문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구비된 장비도 부족했으나, 연기자 등의 노력과 전문성만큼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좋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사육신을 통해 남과 북의 문화교류를 긍정적으로 봐 준다면 나아질 수 있을 것”

2004년 4월 서울에서 개성을 오가며 북한의 민화협과 출퇴근 회담에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사육신>드라마 주문제작 문제와 개성안에 한국방송의 드라마 오픈세트장 짓는 문제도 함께 협의했다. 처음 북한은 '사육신'을 60부작으로 제작해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으나, KBS측은 20부작 정도가 적당하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또한 사육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남북합작 문제를 협의했으나, 북한은 남북합작엔 난색을 표시하며 주문제작 방식을 타진한 바 있었다.(한겨레 2004. 5. 24)

2005년 1월 사육신의 총절과 기개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드라마로 제작하자는데 최종 합의했고, 이어 4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양

측 작가가 만나 9일 동안 대본 공동작업을 진행했다. 6월에는 양측 제작 스태프가 개성에서 만나 의상 분장 미술 효과 조명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드디어 7월부터 북한 배우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양 조선중앙텔레비전 세트장에서 드라마 '사육신'의 첫 촬영에 들어갔다.

KBS 이상엽 CP는 “북한은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구비된 장비도 부족한데다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몇 십년 전 수준이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다만 이 같은 제작환경에도 연기자들의 노력과 전문성 만큼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좋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사육신을 통해 남과 북의 문화교류를 긍정적으로 봐 준다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육신'이 전국시청률 2.7% 대로 저조하긴 했지만, 영화의 호평과 흥행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은 것처럼, 시청률이 드라마의 질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사육신의 내용을 보면 이별 죽음 배신 복수 등 극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순간적인 자극이나 쾌락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드라마였다. 그래서 시청률이 낮아도 소수의 열광적 팬을 거느리는 마니아 드라마였다. 이는 종영할 때까지 드라마 게시판에 1,800여건이나 올라온 시청자 반응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낮은 시청률만으로 '사육신'이 평가되어야 하는가?

어떤 문화든 저마다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문화에 대하여 특정한 입장에서 다른 문화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견해로 '사육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00년을 전후로 남한의 사극드라마는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그리고 시대를 배경하는 기록된 역사를 충실히 재현하는 정통사극에서, 그것 보다는 허구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픽션(fiction)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통속사극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왕과 나', '이산', '태왕사신기' 등의 국내 사극열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사극의 등장이 함께 바람을 타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과거 수없이 다뤄진 조선시대의 수양대군과 사육신, 단종의 식상한 소재를 들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시청자들은 이미 '용의 눈물'이나 '왕과 비' '한명회' 등에서 화학조미료가 듬뿍 첨가된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작품의 구도상 극의 단편적인 선과 악으로 모든 인물을 가르는 이분법적 구성 역시 남한의 시청자들이 '사육신'을 외면하게 한 이유로 꼽힌다. 역사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새로운 해석이나 드라마틱한 반전을 추가하는 남한의 드라마와는 달리, '사육신'은 고전적 평가를 그대로 따랐다. 때문에 세조의 편은 모두 악인, 사육신과



단종의 편은 모두 선인이라는 흑백의 이분법 구조가 마련됐다. 퓨전 사극에 익숙한 시청자들의 입맛을 고려치 않은 고루한 전개와 부족한 갈등 구조, 그리고 남측과 다른 역사관 등으로 인해 몇몇 시청자들은 1980년대 '조선왕조 500년'을 보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셋째, 최초의 남북합작드라마인 만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타방송의 물량과 기술력을 앞세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들이 같은 시간대에 편성이 되면서, 사육신은 1.9% 등 2000년 이후 방송된 미니시리즈 중 역대 최저 시청률 3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들의 반응과 특히 역량은 남한과 많이 달라서 대사를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물론 이것은 남북분단이 낳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절대로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사육신’ 계기로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비정치 분야 프로그램을 일정한 시간대에, 또는 공동채널을 통해 정규적인 통일지향적 보도 및 프로그램의 편성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각 방송사 미니시리즈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목 오후 10시대에 편성한 것은 KBS로서도 파격적인 결정이다. 이는 남성우 편성본부장의 “남북교류의 의미 등을 생각해서 최대한 시청자들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연합뉴스 07. 7. 20)

넷째, 다수의 드라마들이 HD급 고품질 화면에 익숙한 남한 시청자들은, 비디오급 화질과 동시 녹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터빙이 사용되는 북한의 방송 기술 역시 극의 관심을 반감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익숙하지 않은 발성과 발음이 터빙 처리돼 흘러나오는 데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청자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다섯째, 주요 출연진으로는 삼성 애니콜 광고에 이효리와 함께 등장해 남한에서도 인기가 높은 북한 무용수 조명애가 김중서의 수양딸 ‘솔매’로 출연하고 주인공 ‘성삼문’ 역은 북한 최고 미남 배우 박성욱(34)이 맡았다. 성삼문의 연인 ‘정소연’ 역에는 김련화(33)가 출연했다. 이처럼 북한 최고의 스타들이 포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낯선 신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명희 수양대군 김중서, 정인지, 신숙주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배역의 특징을 나름대로 잘 소화해 냈으며, 세조역의 최봉식 또한 악역의 내면적 품격을 드높인 격조 높은 연기를 선사했다. 특히 성삼문 역의 박성욱은 대사전달도 비교적 정확했고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많이 받은 배우이다. 이처럼 뛰어난 연기력의 “사육신에 등장하는 주요 배우들은 평양 예술대학 배우학과 출신들이다. 연극 영화를 했기 때문에 대사도 완벽하다”고 KBS 나상엽 CP는 설명했다.

여섯째, ‘사육신’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 이유를, 낯설은 배우들, 북한식 말투, 과장된 몸짓과 연기, 단조로운 의상과 소품, 북한식 자막 글자체 등을 들었다. 이중에서도 남한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인 만큼 중국을 오가며 하는 대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성은 문화적 충격이었다. 자막해설이 나와 나중에는 많이 적응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배우

이처럼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남측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없었지만, ‘사육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남북의 이념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정치사회에까지 대의(大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이 작품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 특히 북한에서 기획단계 때부터 방송까지 6년간의 제작과정을 걸쳐, 남한에서 3개월 동안 그것도 수·목의 황금시간대에 장편인 북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에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나상엽 CP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북한에서도 ‘사육신’이 방송될 것”이라고, 특히 “마지막 회에 등장한 성삼문과 정소연의 애절한 러브신이 북한에서 방영되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남한을 겨냥하여 제작한 사육신이 북한사회의 시청자들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양측 사회의 시청자 비교분석은 방송학의 연구적 가치에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의 물결은 북한 당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화가 흐르게 마련이다. 방송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본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한류가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가듯이, ‘사육신’ 드라마가 시작은 비록 고난과 역경이 따랐지만, 장차 남북방송교류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사육신’ 계기로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비정치 분야 프로그램을 일정한 시간대에, 또는 공동채널을 통해 정규적인 통일지향적 보도 및 프로그램의 편성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제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북한 영상물을 국내 또는 외주프로그램 제작 비율로 설정한다면 남북 방송교류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원활한 남북한의 방송개방을 위하여 방송법 개정 또는 방송사의 편성규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이지연 동덕여대 교수
문화는 직·간접적인 잦은 접촉으로 인하여 변화를 가져오므로 남북의 교류 역시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긴 안목과 따스한 기쁨으로 원활한 ‘쌍방향 소통’을 이뤄나갈 때 통일은 우리 앞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

‘정상 선언’ 이행 및 현안관련 49개항의 합의문 도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총 8조 4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 주요 합의내용

1.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지향적으로 발전

- 국회회담 등 각 분야 대화와 접촉 활성화 적극 지원

2. 서해평화정책과 공동이익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① 2008년 상반기경 공동어로 사업에 착수
- ② 해주경제특구 · 해주항 개발 관련, 금년중 실무접촉 · 현지조사
- ③ 2008년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착수, 12월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현지조사
- ④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장관급) 구성, 12월중 1차 회의(개성)

3.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적극 추진

-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①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 ·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 금년중 현지조사
 - ②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도로협력분과위’와 ‘철도협력분과위’ 구성 · 운영 〈조선협력단지 건설〉
 - ① 2008년 상반기 안변지역의 선박용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
 - ② 남포지역에 영남배수리공장 설비현대화 및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 추진
 - ③ 12월중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 1차회의 개최 〈개성공단 건설〉
 - ① 2008년안에 2단계 개발에 착수
 - ② 12. 1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
 - ③ 개성공단 통행 · 통신 · 통관 문제 개선조치 실시
 - ④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 〈자원개발 · 농업 ·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지하자원 개발 · 농업 · 보건의료 · 수산 · 환경 보호 분야 분과위원회 구성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부총리급) 구성, 12. 4~6제1차 회의 개최(서울)



4. 역사 · 언어 · 교육 · 문화예술 · 과학기술 ·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 · 협력

- ① 2008년 상반기중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② 12월초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 ③ 12월중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경의선 열차 이용) 실무접촉 실시(개성)

5.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 ① 12. 7 금강산면회소 준공식, 2008년초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 ② 11. 28~30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6. 동포애와 상부상조 원칙에서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적극 지원

7. 총리회담 6개월에 1회 개최, 제2차 남북총리회담(2008상반기, 평양)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2007. 11 28~30,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와 ‘방식 다양화’ 결실

□ 주요 합의내용

- 1.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 실시
 - ① 대면상봉을 연간 400명 정도 실시
 - ② 2008년 6 · 15 계기로 화상상봉이 성사된 이산가족 중 각 100명 정도 특별상봉 실시
 - ③ 화상상봉은 분기별로 40가족, 1년에 160가족 실시
- 2.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교환 실시
 - 2008년 새해에 20가족씩 영상편지 시범교환 및 분기마다 기상봉사 대상 30가족씩 영상편지 교환
- 3.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
- 4. 12. 7 금강산면회소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이 참가
- 5.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 준공 후 개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2007. 11. 27~29, 평양)

적대관계 종식 등 실제적 접근 모색

□ 주요 합의내용

1.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 ① 적대감 조성행동 금지 및 남북간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
- ②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 준수 및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2.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찰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
- ②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 추진

3.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실제적 대책협의

- ①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구역 설정
- ②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결

4.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한 군사적 상호협력

- ①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 추진
- ② 전쟁시기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 협의·해결

5.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조치 추진

- 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 ②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고, 남북관리구역의 3통문제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체결
- ③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

6.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
-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 조속히 개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2007. 12. 4~6, 서울)

'정상선언' 경협합의 실천단계 진입

□ 주요 합의내용

1. 철도·도로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력

- 도로협력분과위(2008. 2. 12~13) 및 철도협력분과위(2008. 1. 22~23) 개최(개성)

2.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협력

- 조선 및 해운분과위(12. 25~28) 개최(부산), 조선협력 및 해주직항로 문제 협의

3.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 조속해결

- 개성공단분과위(12. 20~21) 개최(개성)

4.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

- 2008. 1 지하자원 분과위 제1차 회의 개최(개성)

5.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 농수산협력분과위(12. 14~15) 개최(개성)

6.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추진

- 보건의료·환경보호 분과위(12. 20~21) 개최(개성)

7.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2008. 4 경협제도분과위 제1차 회의 개최(개성)

8.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협의

9. 남북경협공동위 제2차 회의를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현황

남북 상생의 '有無相通' 新경협모델 가동

1. 추진경과

2005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2005. 7. 9~12, 서울)에서 남측은 의복·신발·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인회석 등의 지하자원을 제공하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제12차(2006. 6. 3~6)와 제13차 경추위(2007. 4. 18~22, 평양)를 통해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실무적 뒷받침을 위해 5월 28일 발족

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지난 5월 남북열차의 성공적 시험운행에 힘입어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회의도 활기를 띠면서 정부는 동 사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간 합의를 거쳐 5월 28일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박홍렬)를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로 지정하였다. (북측은 명지총회사를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로 지정)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누세제협회 등 경공업 및 지하자원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공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설립한 동 협회는 경공업 협력과 관련하여 원자재 제공규모·가격·방식 등을 북측과 협의·확정하고, 원자재 구매·수송 및 상환, 경공업 기술협력 등의 업무 및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대북협의, 타당성 조사,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2차례 회동

3. 이행기간간 실무협의와 이행

남북의 두 이행기구는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1차(6. 7~8) 및 2차(7. 5~6) 실무협의를 갖고, 지하자원 개발관련 현지 공

동조사 일정 및 경공업 원자재(신발·의류·비누) 제공 가격 및 품질 문제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남측 이행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7. 7)에 따라 경공업 원자재 제1항차분(폴리에스터 단섬유 500톤)을 7월 25일(수) 인천~남포간 정기항로를 통해 북한에 보냈으며, 이를 시작으로 섬유·신발·비누 등 3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95개 항목을 12월 말까지 분할 제공하였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북한 단천 지역의 검덕(아연), 룡양 및 대흥(마그네사이트)등 3개 광산에 대한 지질 및 최근의 생산 현황, 설비보류 실태 등 제1차 현지조사이후 2차(10.20~11.7)에 이어 12월 제3차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내년 투자희망업체를 선정, 본격 지하자원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과 10월, 11월에는 우리측이 제공하는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될 평양 인근의 평양방직공장·평양원일신발공장·강서신발공장·평양화장품공장을 방문하였으며, 평양을 방문한 우리 기술자들과 북측의 기술자들은 공장현장에서 공급된 원자재에 대한 사용방법·규격조정 등에 관해 기술협의를 하였다.

남한의 안정적 자원확보 기반에도 기여

4. 평가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기술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경공업 수준을 제고하여 경공업 부문에서의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고, 의복 및 신발·비누 등의 원자재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우리 측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북 근로자의 수가 벌써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리빙아트 개성공장이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 첫 제품을 생산·출하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공동체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남북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경제공동체를 넘어, 남북의 '문화공동체'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남북 문화통합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낮은 체제에서 살던 남북 근로자들이 만나 갈등과 조정, 오해와 이해, 인내와 배려를 실험하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 결혼을 해도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는 법입니다. 육식과 야채를 좋아하는 식성의 차이는 물론이고, 밥과 설거지 당번을 정하는 것 등을 놓고 티격태격 하다 보면 신선생활이 말다툼으로 얼룩지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허물며, 5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와 서로 다른 근무환경,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온 남북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이상 한 울타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과 다툼이 없는 것이 되레 이상한 일입니다.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고 조정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남북 문화통합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

개성공단에서도 초기엔 시시콜콜한 인쟁이나 기싸움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선 남측이나 북측 차량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번호판 규격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번호판 규



격을 정할 때 '개성공업'이란 글자 크기나 차에 고정시킬 나사의 위치를 놓고도 남북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국토지공사'나 '한국전력공사' 처럼 고명사인 기업 이름에 '한국'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도 북측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옛날의 추억거리가 됐지만요.

'오해'에서 비롯된 '다름'의 간격은 '이해'로 메울 수 있습니다. 2004년 말부터 2005년 상반기 사이에 입주한 남측 시범단지 기업들이 가장 당황해 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는 북측 근로자들의 '총화'였을 것입니다. 총화는 각자에게 맡겨진 과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책 등을 논의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조별로 모여, 매일 5~10분 정도씩 목표량과 생산량,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간단하게 논의합니다. 특별히 회의실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서서 가볍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남측 관리자들은 북측 근로자들이 자기네끼리만 모여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정치 학습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남측 사람들을 '왕따'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측 근로자들이 회합을 통해 '작업'과 '생산'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남북 근로자 부지불식간에 상대방 언어사용

물론 북측 근로자들이 오해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선 세트인 '와이어 하니스'를 생산하는 부천공업의 경

우, 초기 공장 가동 때 북측 근로자 50명을 받아 일주일가량 '작업장 청소'만 시켰다고 합니다.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 작업장 청결이 아주 중요했고, 청소를 통해 이런 인식과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측의 기업문화를 몰랐던 북측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반발을 했으나 "먼지가 들어가면 불량이 나온다"는 회사 측 설명을 듣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작업장 청결이 몸에 밴 초창기 북측 근로자들이 신입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면, '체제의 차이'라는 커다란 장벽도 일정 정도까지는 뛰어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북측 개성공단 관리자에게 "어느 입주기업에 가장 마음이 끌리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기업입니다"라고 하더군요. 다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입주기업의 남측 본사 관리자들은 대체로 "생산량이 올랐냐" "결근한 사람은 없냐"는 것을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북측 근로자들이 식사는 잘 하느냐" "북측 근로자 가운데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업 개성공장에선 법인장을 비롯해 남측 직원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북측 근로자들에게 출근 인사를 건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연장근무를 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초코파이나 라면을 주는 것과 달리, 라면과 함께 간단한 식사도 제공합니다. 진정성이 통했는지, 기독교 색채가 강한 이 회사의 기업문화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북측 관료들이나 근로자들도 이제 ○○기업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 ○



○기업 개성공장 강당 정면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남측에 비해 종교의 다양성이 부족한 북측에선 찾아보기 쉽지 않은 풍경이죠.

"일없습니다"는 이미 아는 '유행어'

문화라는 것이,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이해해야 하거나, 지배하거나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양측의 문화가 서로 침투하고 융합하기도 합니다. 개성공단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말투까지 비슷해진다고 하듯이, 개성공단 남북 근로자들도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측 직원은 화장실을 북측 표현인 '위생실'이라고 부르고, 북측 직원들은 위생실을 남측 용어인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측에서 습관처럼 사용하는 '일없습니다' (괜찮습니다)도 남측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행어'가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들은 "남측의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면 말투가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남북의 문화엔 아직도 많은 공통점이 남아 있습니다. 남측에선 연장자 대우 의식이 많이 약해졌지만, 북측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연세가 지긋한 개성공단 현지 법인장(남측 본사에서 파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지 총 관리자)들은 좀 편하다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 자식에 대한 애정 등도 북측 근로자들에게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문화의 '다름'은 이해하고 배려하며, '같음'은 확인하고 공유한다면 남북 문화통합은 아주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희망을 가져봅시다.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문화공동체'가 영그는 곳

기자 눈에 비친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공단 사람들



이용인 한겨레신문 민족국제부문기자
독일 통일에서도 보듯 문화통합이 정치통합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그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힘겨운 문화통합 실험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나름의 '희망' 피력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종합지원센터 착공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업운영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9일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과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을 김동근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관세 통일부 차관, 주동찬 북측 중앙 특구개발지도총국장을 비롯해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 등 관계자와 관리위원회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업지구 현장에서 가졌다.

지난 2004년 6월 29일에 창립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의 투자여건 조성 및 기업설립 승인, 기반시설 관리 및 개성공단의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마련 등의 남북경협 지원업무에 힘썼으며, 특히 남북의 제도적·문화적·정치적 차이를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그동안 북한의 담당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협의하여 개발규정, 세금규정, 노동규정, 출입·체류규정, 보험규정 등 29개의 각종 규정과 합의서를 마련하였고, 기업장설·운영준칙, 가스건설안전관리준칙 등 37개의 시행 준칙을 마련하였다.

지난 8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법률'이 발효되고,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통행·통신·통관' 등 소위 3통문제의 조속한 완비와 함께 빠른 시일 내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발전을 위한 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날 창립 3주년 기념식과 함께 착공식을 가진 종합지원센터(2009년 12월 완공 예정)는 개성공업지구의 랜드마크로서 관리위원회 청사 입주와 함께 국제회의장 등 컨벤션센터 기능을 수행할 지상 15층·지하 1층의 복합행정공간으로, 개성공단 발전과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사·컨벤션센터 기능을 수행할 개성공업지구 '랜드마크'



지상 15층·지하 1층 규모의 종합지원센터 조감도
(대지면적 39,669㎡, 연면적 30,221㎡,
건축면적 4,772㎡, 최고높이 69.7m)

금강산 일대 '기상재해' 예방효과 기대

금강산 기상관측장비 착공식

통일부는 금강산 지구 내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할 자동기상관측(AWS) 1식과 기상 예보표출 전광판 3대(실내용 2대, 실외용 1대)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지역내 출입 및 체류인원의 계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규모 시설 확충에 따른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해 예방만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22일 기상청과 공동으로 착공식과 남북기상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지면서 본격운영에 들어간 본 기상관측 시스템은 우리 정부가 북한지역에 처음 설치한 것으로 금강산 지역의 기온·습도·기압과 같은 기상요소와 대기 중에 떠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한다. 기상청은 이 관측 자료를 활용, 금강산 관광지역에 근무하는 남북 근무자와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 등 일일 체류자 2,000~2,500명(차량 270여 대 규모)에게 날씨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그동안 금강산 지역의 황사정보 부재로 인하여 예보가 어려



웠던 북측지역을 통해 남하하는 황사 관측을 위한 황사관측 장비도 아울러 설치되어 우리측 황사예보 정확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기상관측장비는 금강산 외에도 개성공단에도 지난 10월말에 완공, 운영중이다.

남한자본 투여 첫 북한내 골프장 '금강산 아난티골프&온천 리조트'

머리 위 비로봉, 발아래 장전향을 두고 '티샷'

세계 최장 1016야드의 12번홀(파6). 18홀 전체에서 비로봉 등 금강산 전경과 동해 장전향이 보이는 골프장.

지난 10월 25일부터 나흘간 북한에서 한국프로골프(KPGA) 정규대회가 처음으로 열려 화제가 되었던 금강산 아난티골프&온천 리조트(파72)는 북녘 땅에 남한 자본이 투여되어 건설된 첫 골프장이다.

골프리조트 전문기업인 에머슨퍼시픽그룹(회장 이중명)이 3년의 건설기간을 걸쳐 금강산특구 고성봉 일대(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약 50만평에 조성한 이 골프장은 내년 3월 예정인 공식 오픈을 앞두고, 현재 리조트를 비롯 2,500평 규모의 골프하우스 등 부대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민·관이 따로없는 잇단 북한수해 지원

작년에 이은 북 수해피해에 온정 손길

북한은 지난 8월 7일부터 8일간 연간 강수량의 70~80%에 해당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작년에 이어 또 다시 극심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북한에 내린 폭우는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양시 등지에 5일 사이에 500~600mm가 내리는 등 지난 1967년 평양이 물바다가 됐던 대홍수 이후 최고 강우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8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 중앙통계국은 사망실종 600여 명, 24만 세대의 주택침수 및 100만여 명의 이재민, 20만여 정보의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100년만에 큰 피해'라고 했던 지난 95년 '대홍수' 피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북측은 이례적으로 피해상황을 즉각 보도하고, 군인들까지 비상동원 시키면서 긴급 복구에 나서는 한편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에 남측 NGO단체 등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북한수해 동포 돕기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는 '북한수해동포 지원운동'을 통해 8월 24일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총 10차에 걸쳐(10월 31일까지) 라면·밀가루 등 생필품에서 시멘트·페인트·건축자재 등 복구재를 전달하였다.

한편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와 철근 및 도로복구에 필요한 피치 등 수해복구에 긴급히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품목을 제시하면서 우리 측에 지원을 공식요청 해옴에 따라 민간차원의 지원 외로 북녘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 견지 및 국내여론 등을 감안하여 국무총리 주재로 북한 수해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8월 24일) 북한의 피해상황 및 지원요청, 우리의 가용재원, 물품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총 374억 상당의 수해복구 자재·장비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지난 9월 말까지 북측 전달을 완료하였다.

또한 지자체로서는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긴급심의를 거쳐 라면과 밀가루 등 약 1억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였다.



후손에게 넘겨줄 우리네 자연이기에...

북 산림복구 사업 필요성

북한은 전체 국토면적 1,200만ha중 약 80%가 산지이며, 해발 2,000m 이상 되는 산만해도 60여개나 되는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산림 현황은 식량난과 에너지난, 외화난에 봉착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닌 산림의 황폐화이며, 주요 원인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식량증산을 위해 과도하게 산을 깎아 밭으로 만들었다. 1985년까지 다락밭 개발면적은 약 16만ha로 다락밭에는 지력 요구도가 높은 옥수수를 주로 재배했는데, 옥수수는 봄에서 늦여름까지 비교적 짧은 생육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중 대부분의 기간이 산바닥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상태로 이어져 소량의 비에도 토양침식이 가속화되고, 산사태의 일차적 원인이 된다.

둘째, 198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난으로 농촌지역의 대부분의 주택이 취사 및 난방용으로 임산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평양 남포 개성 등 일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도 취사 및 난방용으로 나무(목재)를 사용해 농촌·도시지역 모두 인근 야산의 산림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셋째, 외화획득을 위해 양호한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벌채하여 중국 등지로 수출하게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원목 수출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원인들로 80년대 이후 북한의 산림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1995년 이래 계속된 대홍수는 이러한 산림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솔잎혹파리·송충이 등의 병해충이나 산불에 의한 산림면적 감소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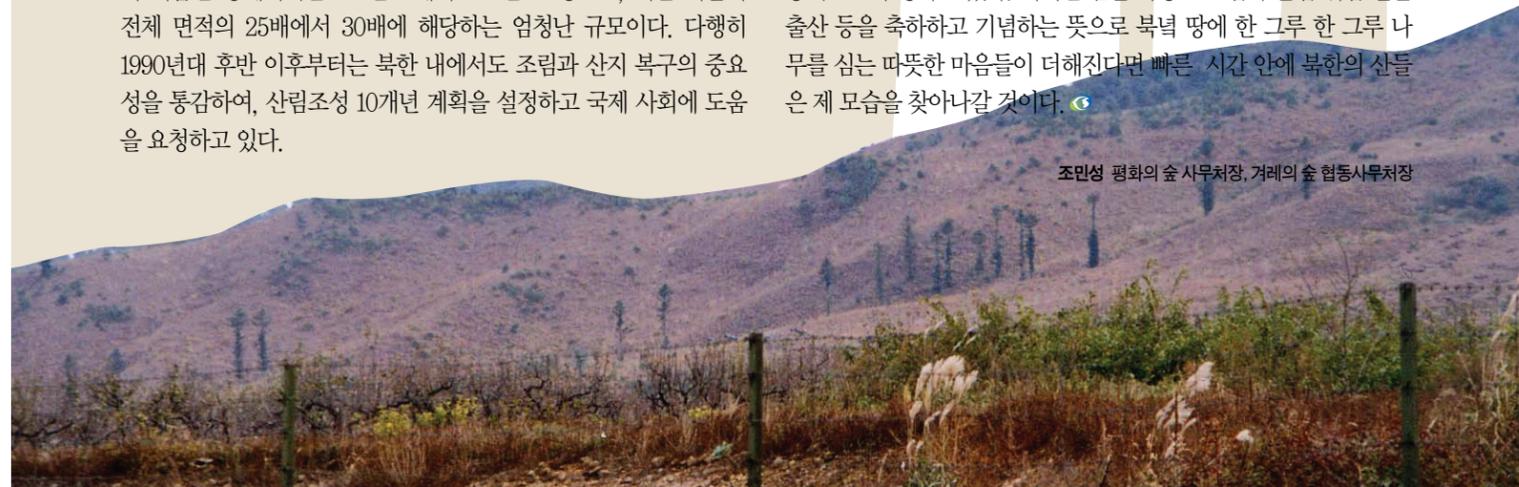
인공위성 관측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북한의 산림 중 조림이 시급한 황폐지역은 150만ha에서 200만ha 정도로,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배에서 3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다행히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북한 내에서도 조림과 산지 복구의 중요성을 통감하여,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설정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력으로 산림복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북한을 돕기 위해 민간단체인 '평화의 숲'이 창립(1999년 3월)되었고, 창립 이후 지금까지 묘목·종자·임업 장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자체 묘목 생산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평양과 금강산 지역에 양묘장도 조성, 매년 200만 그루 이상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2007년 들어서서는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흥사단, 문화방송 등 여러 단체·기관들이 참여하여 '겨레의 숲'이란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보다 규모 있는 산림복구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북한의 산림황폐지의 복구는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의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훼손된 우리의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남북이 함께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최근 수해로 어느 때보다 수해방지를 위한 산림녹화에 관심이 높아졌고, 남북정상간의 회담 과정에서에서도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금이 동포애를 발휘해서 북한의 산림복구를 지원해야 할 가장 좋은 기회다. 더욱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들은 기후변화협약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의무적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중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가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나무를 심는 일이다. 해외 어느 나라에 가든 나무를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므로 기왕이면 우리 동포들이 사는 한반도에 심는 것이 좋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일제의 목재수탈과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전 국토를 짧은 기간 내에 녹화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인 산림녹화사업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심은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가꾸어 숲의 생태적·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으로 북녘 땅에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는 따뜻한 마음들이 더해진다면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의 산들은 제 모습을 찾아나갈 것이다.

조만성 평화의 숲 사무처장, 겨레의 숲 협동사무처장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및 제7차 화상상봉

금강소 면회소에서의 상시상봉 실현 눈앞

지난 4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10월 1일부터 6일까지로 합의되었으나, 2007 남북정상회담 준비로 한 차례 연기되었다)

이번 제16차 대면상봉에서 1회차에는 북측 97명이 재남가족 396명을 만났고, 2회차에서는 남측 122명(동반29포함)이 재북가족 216명을 상봉하였다.

한편 남북 적십자단체는 10월 30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7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대상자 최종명단(남북 각기 40명)을 교환하였는데, 11월 14, 15일 이틀간에 걸쳐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지사(인천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춘천 제주)에 설치된 화상상봉장에서 재북 가족들과 화상으로 상봉하였다 이번에 참가한 우리측 최고령자는 한고분 할머니(102세)로 북측의 딸과 손자를 만났으며, 북측 최고령자는 럽수성 할아버지(82세)로 남측에 있는 형과 조카를 만났다.

구분	남	북	계
대면상봉(16회)	1,683가족(10,673명)	1,695가족(5,539명)	3,378가족(16,212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2,257명)	278가족(1,491명)	557가족(3,748명)
계	1,962가족(12,930명)	1,973가족(7,030명)	3,935가족(19,960명)



6·15 남북공동선언(제3항)에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8·15 계기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에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 및 생사·주소확인 2회, 서신교환 1회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상봉행사는 1년에 2~3차례 간헐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아직 상봉을 하지 않은 사람을 위주로 선발하여 이산가족들이 애타한 혈육의 정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7항에서 합의한 금강소 면회소에서의 상시상봉 합의는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미 상봉한 사람에게도 상봉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한 단계 진전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도 대북 식량차관 분배현장 방문 40만 톤 제공종료와 함께 마무리

대북 식량차관 제3, 4차 분배현장 방문이 마무리됨으로써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총 40만 톤 규모의 2007년도 식량차관 제공에 따른 분배현장 방문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간 쌀차관 합의(△30일 이내 분배결과 통보 △서해안 2곳과 동해안 3곳에 대한 분배현장 확인토록 합의)를 통해 매 10만 톤씩 수송완료 때마다 우리 측 인원이 분배현장을 확인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월 15일 3차 분배현장 원산 3곳(장덕·갈마·신위)과 11월 19일 남포 2곳(남산·와

우도), 그리고 11월 24일 제4차 분배현장 청진(남강·제강·락양) 및 서해지구 식량공급소를 직접 방문, 우리 측에서 지원한 식량의 북한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을 참관하고 식량관계자 및 북한주민들을 인터뷰하였다.

북측은 우리가 지원한 쌀을 북한주민에게 1개월에 2회(1일, 6일)에 걸쳐 직업과 연령 등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분배하고 있다. 북측은 세대별로 식량공급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이 제출한 배급표를 확인한 후 해당등급에 따라 쌀을 분배한다.

평양 당곡리에서 남북공동 벼베기 실시

경기도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의 대표단(단장 함진규 도의회 대표의원)을 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장인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벼베기 행사 및 농촌 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30일 도 대표단이 방북하여 당곡리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다.

2006년부터 벼농사 협력사업과 농업기반 조성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북한농촌현대화사업'을 북측과 협력하여 추진해온 경기도는 올해에도 벼농사 협력사업을 200ha로 늘려(2006년 100ha) 추진하고, 도정공장 신축과 소학교·유치원 보수 완료 및 탁아소·진료소 등을 신축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평양 장교리소학교 건립 범도민 모금운동 전개

경남통일농업협력회(회장 전강석)는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 내에 있는 장교리소학교 신축을 위한 범도민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6월 30일 총 9억8천7백만 원을 모금, 현재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어 교육기자재 설치 및 주변정리 작업이 한창이며 연내 완공예정이다.

지난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창원종합운동장)를 시작으로 마산·진주 등 가두 모금 등을 통해 모금한 성금은 신축건물 연면적 1천 920㎡(580.80평)에 지상 2층 규모로 3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북녘어린이 지원, 헌 교과서 모으기 운동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북녘어린이 교육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광 민 김혁중 윤장현)은 광주전남 각급학교에서 참여한 '폐 종이 수집운동' 결과, 지난 2005년 10월 4일 교과서용 종이 40톤(3천5백만 원 상당, 교과서 12만 권 제작가능)을 북에 전달하였다.

이어 2006년 총 3차례 집중캠페인 기간에 모아진 헌 교과서와 폐지를 재활용하여 교과서 용지 35톤(3천만 원 상당) 규모의 제2차 전달환송식을 5월 14일 광주 무등초등학교에서 가졌다.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건설자재 등 지원 '평양 발효콩 공장' 준공

지난 2003년부터 북측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의 지원으로 문을 여는 '평양 발효콩 공장' (평양 만경대 구역 칠골동) 준공식 참석을 위해 전남도지사(박준영)를 대표로 100명의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대표단이 10월 26일 광주공항에서 평양공항으로 고려항공편을 이용, 지방에서는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올 3월부터 건설자재 및 시설을 전달하고 남측 전문가들이 5차례의 방북을 통해 북측 노동자와 함께 완공한 평양 발효콩 공장(청국장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매일 북측 어린이 16,000명의 영양공급 및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한 민족 '보건의료' 발전기여의 장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9차 평양의학과학도론펠회에 남측 대표단 28명이 참석하였다.

박준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을지대학교 총장)와 김인호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을지대학교 · 대한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평양 의학과학도론펠회는 북한에서 1999년 5월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토론펠회이다. 남측은 2003년과 2004년, 2006년에 이어 네 번째 참석이다.

이번 토론펠회에는 북측 의사 250여 명, 남측 대표단 28명, 미국 대표단 6명을 비롯하여 250여 명의 의료인들이 참석하였다.



제9차 평양의학과학도론펠회

3차 전남 강진, 4차 평양에서 열려

남북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3, 4차 남북 청소년 축구팀 상호교환경기가 (3차경기 10. 13~25 전남 강진 / 4차경기 11. 3~14 평양) 열렸다.

제3차 경기는 브라질 등 7개국 8개 팀이 참가한 '제2회 한국중등(U-15) 축구연맹회장배 겸 전라남도지사배 국제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선수 23명, 임원 3명 등 총 26명이 방한하여 남한의 청룡팀에 1:0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차 경기(사천)에서는 북측의 4.25체육단 청소년팀이 남측의 리토국제축구학교와 2차례 경기를 치렀다.

남북의 청소년들은 전지훈련과 교환경기, 그리고 명소참관을 병행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남북 청소년 축구팀 상호교환경기



2007 윤이상 페스티벌

서울~평양~베를린으로 이어진 음악향연

현재까지 세계음악계에 가장 잘 알려진 한국의 작곡가, 유럽에서 현대를 움직인 5명의 작곡가에 손꼽히는 작곡가. 독일 자아브뤼켄 방송이 뽑은 20세기 100년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1995년 5월)된 윤이상(1917~1995), 그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2007 윤이상 페스티벌' 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윤이상 탄생일(9. 17)부터 서거일(11. 3)까지 그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 작품들을 축제에 담아낸 '2007 윤이상 페스티벌' 이 지난 9월 16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펼쳐졌다.

서울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과 국제윤이상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예술의 전당 등)은 물론 베를린(베를린 음대)과 평양(윤이상 음악당)에서도 특별 음악회(총 12곳)가 열렸는데 '서울 윤이상 앙상블' 창단 연주와 윤이상의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 초연 등 다양하고 뜻 깊은 행사들로 이어진, 지금까지의 작곡가 윤이상 관련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치러졌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윤이상 음악상' 은 국제 콩쿠르로, 올해를 기점으로 2년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 윤이상 음악상은 니콜라우스 후버와 이사오 마츠시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여타 유명 국제 콩쿠르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국제 작곡 콩쿠르에는 음악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고 2006년 진은숙이 수상하기도 한 '그라베마이어 음악상'과 '가우테아무스 음악상', 그리고 '몬트리올 국제 작곡상'과 '타케미츠 도루 국제 작곡상' '서울 국제 작곡 콩쿠르' 등이 있는데, 여기에 '국제 윤이상 음악상'이 새롭게 추가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윤이상이 투옥되었을 때 유럽에서 윤이상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대표적 음악인 중 한 명인 지휘자 프란시스 트라비스(Francis Travis)가 방한, 페스티벌 행사에서 윤이상 작품을 직접 지휘하고 음악상 심사도 했다. 그는 윤이상의 '일곱악기를 위한 음악' '바라' '콘체르트 피구렌' 등의 작품을 세계 초연할 정도로 윤이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윤이상 스페셜리스트다. 또한 독일의 대표적인 현대음악 작곡가인 거장, 니콜라우스 후버(Nikolaus A. Huber)와 베를린 음대에서 윤이상에 작곡 공부를 배웠던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이사오 마츠시다(Isao Matsushita) 역시 이번 페스티벌 참가와 음악상 심사를 위해 방한하여 눈길을 끌었다.

2007 윤이상 페스티벌 프로그램

번호	일시	장소	행사명	번호	일시	장소	행사명
1	9월 15일(토), 16:00	호암아트홀	음악상 결선심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치용(지휘)	7	10월 9일(화), 19:30	국립국악원 예약당	국악과 윤이상의 만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지휘: 정치용
2	9월 16일(일), 16:00	예술의전당콘서트홀	2007 윤이상 페스티벌 개막공연 및 음악상 시상식 기념음악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프란시스 트라비스, 정치용 협연: 고희인(첼로)	8	10월 20일(토), 17:00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서울시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 지휘: 박태영 협연: 사토키 아오야마(오보에)
3	9월 17일(월), 18: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식	9	11월 2일(금), 20:00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KBS교향악단, 지휘: 구자범 하인츠 홀리거(오보에) 우어줄라 홀리거(하프)
4	9월 18일(화), 20:00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서울 윤이상 앙상블 창단연주 지휘: 프란시스 트라비스	10	11월 3일(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윤이상 서거 12주기 추모음악회
5	9월 19일(수), 20:00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TIMF(통영국제음악제) 앙상블 연주회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초연	11	10월 17-19일(토-월)	평양 윤이상 음악당	평양 제26차 윤이상 음악회
6	9월 20일(목), 20:00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박승 한울림합창단	12	11월 8-10(목-토)	베를린 국립음대 콘서트홀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의 밤 연주: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

윤이상 魂을 연주할 전문 연주단 창단

'서울 윤이상 앙상블'
(Seoul Isang Yun Ensemble)

2007 윤이상 페스티벌 기간 중 9월 1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 '윤이상 전문 연주단'은 기존의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과 평양의 윤이상 관현악단에 이어 그동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던 한국 내 윤이상 음악 전문 연주단체로 탄생되었다.

서울 윤이상 앙상블을 이끌어 갈 수장은 음악감독에 서울바로크합주단의 음악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과 명예지휘자 프란시스 트라비스이며, 연주자로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서울대 음대교수)과 비올리니스트 최은식(서울대 음대 교수), 일본 NHK 수석 오보에 주자인 사토키 아오야마(Satoki Aoyama) 등 국내외 실력과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평화재단 · 대우차판매(주) '새터민 일자리 창출' 협약 안정정착에 기여... '타 기업체까지 확대' 기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지난 10월 23일 남북평화재단 및 대우차판매(주)와 함께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남한정착에 크게 기여할 '새터민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충원 하나원장과 박형규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이동호 대우차판매(주) 대표이사가 참석,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하나원 · 남북평화재단과 대우차판매(주)가 공동으로 하나원을 수료한 남성 새터민 중 자동차운전면허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10~20명을 대우차판매(주) 정비사업소에서 채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남성 새터민을 하나원에서 추천하면 남북평화재단과 대우차판매(주)가 최종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며, 1년간은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 이후에는 정식으로 채용(4대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선발 기준이나 채용절차에 대해선 하나원과 남북평화재단, 대우차판매(주)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하나원 이충원 원장은 "새터민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새터민 일자리 창출사업"을 타기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실무자로 참석한 김임태 하나원 진로지도 주무관은 "이번 협약식은 새터민들이 남한정착을 위해 가장 절실한 취업 문제를 대기업과 협약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힘쓰겠다"고.

새터민 중 대우차판매(주) 정비사업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하나원의 추천을 받아 대우차판매(주)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나원 담당자(김임태) 연락처 031-486-6929, 이메일 mire22@hanmail.net

통일교육원, '금강산 체험연수' 후속 프로그램

2008년부터 북한현지체험학습 재개

통일교육원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이후 중단했던 '북한현지 체험학습'을 내년 1월부터 재개한다. '북한현지 체험학습'은 남북관계 발전상황과 북한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금강산 체험연수'의 후속이다.

본 체험학습은 학생 및 교사들의 진학지도와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4,550명, 대학생 150명, 교사 4,700명 등 총 9,400명 규모로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이루어지며, 2박3일 일정으로 1회 400명 규모, 총24회로 실시될 예정이다.

소요경비 지원으로 진행될 본 체험학습 참가대상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도서벽지거주 학생 등 상대적으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계획이다. 또한 통일글짓기 등 통일행사 참가 우수자 등 통일교육원 주관 행사 참가자들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단 금강산 체험학습 유경험자는 이번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프로그램은 북한현지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되, 영상물 시청 등 현지교육을 통해 학습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통일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북측 친구에게 편지쓰기' '도전 통일벨'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포함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05년 금강산 체험연수(2005. 12. 22~2006. 3. 8)를 진행하면서 KOSI에서 참가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96%가 통일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은 81.4%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007 3~6차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금강산 · 대전에서 개최, 총 750여명 참가

통일교육원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교육'이란 대주제 하에 2007년도 제3~6차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금강산에서 개최한 제3~5차 워크숍에서는 통일교육원의 고성호(3차, 8. 6~8), 권영경(4차, 8. 8~10), 이미경(5차, 8. 13~15) 교수가 서울지역 유치원 · 초 · 중 · 고 교사, 교육전문직 45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다. 11월 22일 대전에서 대전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6차 워크숍은 현지 초 · 중 · 고 통일교육 담당 교사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3차 워크숍은 금강산 관광을 소재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여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였으며, 제4차 워크숍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통일교육 직무연수, 새터민 학생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과정, 초등학교를 위한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초등학교 대상 통일교육원 금강산 체험연수 실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5차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통일교육원과 서울시 교육청 간 업무협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6차 워크숍에서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참가자들은 화해협력으로의 남북관계발전과 이에 따른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통일교육 담당 교사와 장학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활발한 의견교환의 시간과 함께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제26회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시상식 우수상 3명 등 총 7명 입상자 발표

대학사회 내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 제고와 함께 연구 분위기 확산을 통한 통일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26회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시상식이 지난 11월 13일 통일교육원에서 열렸다.



통일정책과 통일교육, 남북경협 및 북한문제 관련 전반을 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8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30편의 논문을 응모하였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1,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장소운(경희대 대학원) 등 우수상 3명, 전성민(부산대) 등 장려상 4명 등 총 7명의 입상자를 발표하였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 및 장학금 300만 원이,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 및 장학금 200만 원을 각각 수여하였다. 향후 논문 제출자 전원은 금강산으로 북한지역 체험학습(2박3일)을 떠날 예정이며, 논문집도 발간되어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제2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국과장급 공무원 등 총 36명 수료

지난 2월 26일 입교식(통일교육원 강당)으로 시작된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제2기 과정이 12월 5일, 36명이 수료한 가운데 마쳤다.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과정에 대비한 민 · 관 중견지도자 양성을 위해 통일교육원이 지난 2006년에 개설한 본 과정은 운영성과에 힘입어 교육인원을 1기때 29명에서 36명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국가 기관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 등으로 구성된 제2기생들은 통일정책-북한이해-국제관계-통일과정 등 4개 분야별 전문강의와 현장체험, 그리고 쟁점현안 집중토론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과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편집부

통일교육소식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6 2007. 12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통일교육소식' 담당자(앞)

1 4 2 - 7 1 5



본 통일교육소식^{UNEMI}은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네 맘과 정성을 담은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여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열매를 맺기 위한 빛과 거름이 되겠습니다

본 소식이 다 읽으셨다면,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소중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 인물(화제의 인물, 역사적 인물, 주변의 숨은 인물 등)
- 사건(국내외 화제, 통일정책 관련 기사의 심층취재 등)
- 통일교육 현장(관련기관, 학교현장, 우리반 통일이야기, 내가 본 우리아이들의 통일관 등)
- 새터민들의 '나도 한 마디'
- 문화(문학, 공연,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통일, 북한소식, 북한생활 · 문화 등 궁금한 사항은? (통일 Q&A 코너)

신설했으면 하는 코너나 장르가 있다면?

'독자엽서' 를 보내주시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독자엽서' 를 보내주시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300자 서평

美 대북정책 두 가지 입장에 대한 견해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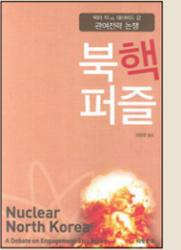
북핵퍼즐 / 빅터 차 · 데이비드 강 공저 / 김일영 역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던 빅터 차와 정치학자 데이비드 강이 북핵 해법을 제시한 '북핵 퍼즐'이 출간됐다. 조지타운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빅터 차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과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역임했다. 데이비드 강은 다트머스대학 정치학과 부교수로 '계간 정치학(Political Science Quarterly)' '아시아정책(Asia Policy)'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이 책의 영문판이 출간된 2003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 단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당사국간의 합의 등이 이뤄졌지만 북한 관련 쟁점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저자의 주장은 이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대폭 개혁하는 것이 대

북정책의 목표이며,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국의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빅터 차는 문제의 근원이 북한 체제 그 자체라고 보고 '매파적 관여' 정책을 주문한다. 이는 봉쇄를 기반으로 한 관여정책을 뜻한다. 데이비드 강에게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다. 미국의 강압적 정책이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둘기파 관여전략'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책은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매파, 온건한 입장을 견지해온 비둘기파 등 대북 정책을 두고 미국에서 의견이 분분한 두 가지 입장을 공저자들의 견해를 통해 전달하면서 "핵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도 증진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따뜻한손, 2007년 9월 16일, 15,000원



'북한 · 통일 관련 FAQ' 를 정리 · 해설

자주 묻는 통일이야기 50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현장에서 자주 묻는 50가지 주제를 골라 문답형태의 교재를 발간하였다. 방북자와 각급학교 교사, 그리고 사회단체 지도자 등 통일교육원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선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문에서는 통일정책과 주변정세, 남북관계, 북한의 정치 · 외교 · 군사 · 경제 · 사회 · 문화에 관해 교육원 초청 교육생들의 관심사항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문답을 구성하였다. 부록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상을 체감할 수 있는 각종 통계와 현황 자료를 수록하였다.

(통일교육원 발간, 비매품)

남북통일 시너지효과를 알기쉽게 설명

통일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통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북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를 알려주는 어린이용 교양서로 다양한 사진자료를 곁들이고 있다. 특히 '통일이 되면'이라는 가정 하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내용이 특징 있게 짜여져 있다. 6 · 25 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보존된 공간인 비무장지대(DMZ)를 시작으로 북한의



(통일교육원 발간, 비매품)

지리적 조건과 환경, 통일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과 경제적 효과, 문화생활, 그리고 북한의 문화유적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통일이라는 낯선 풍경을 어린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펴본 점이 돋보이는 책이다.

(한림출판사, 신석호 · 이명혜 저음, 2007년 10월 15일, 9,800원)

평화와 접목당한 통일교육의 틀 제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기존의 통일교육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 한반도에서 평화유지 · 발전 등 적극적 평화통일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통일교육원에서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를 발간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가인 추병완 춘천교육대학 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통일교육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서, 앞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발간, 비매품)

북한모습 구체적으로 정리한 개론서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개정 증보판)

북한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이 책은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북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북한 개론서이다. 북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조

명할 수 있으며, 단순히 북한체제를 평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열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문은 먼저 북한인식론, 북한연구방법론, 자료활용법 등 북한학의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북한이 과거에 걸어온 길을 체제형성 과정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오늘날의 정치, 경제, 주체사상, 군, 중앙-지방관계, 사회체제, 대남정책 등을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고 마무리한다. (법문사, 박재규 저, 2007년 7월 30일, 25,000원)



기존의 정치 · 경제 등 고식적인 분류탈피

반갑습네다 리선생

이 책의 부제는 '8가지 코드로 본 남북관계'이다. 기존의 정치 · 경제 등 고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대북지원 · 인터넷 · 관광 · 교류 · 협력 · 위협 또는 평화 · 인권 · 통일법제'의 주제로 나누어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고민하고 다룬 대북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안들에 더해 책에는 '단고기' 등 북한의 음식, 그리고 북한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의 내용이 간간히 나와 무거운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면서도 조금은 더 편안한 느낌으로 글을 접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문학사, 이종현 저, 2007년 9월 15일, 12,000원)

